

6일 Market Index	
코스피 7384.56 (+447.57)	코스닥 1210.17 (-3.57)
금리 (연이자율) 3.595 (-0.020)	환율 (원/달러) 1452.45 (-10.35)



## 영업이익 94% 낸 DS 성과급 나눠주기 '반발'

### ◆삼성전자 초격차의 역설

#### ① 호황이 키운 노조 파열음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새 지평을 열고 있지만,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이 조직 내 보상 구조의 균열을 드러내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 중 DS(반도체) 부문이 53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자 영업이익의 94%를 차지했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과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 주도권 회복이 맞물린 결과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적 격차가 사업부 간 성과 배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1분기 영업이익 57.2조 '사상최대' 이 중 DS부문 지분 53.7조 달해

업계추산 1인당 성과급 평균 6억 DS 관계자 "인력 30% 배치하고 성과급 나눠 달라는 건 이해 안돼"

DX부문 성과급 논의 사실상 배제 노조 탈퇴, 하이닉스 이직 분위기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올해 임단협에서 요구하는 핵심 안건은 OPI(초과이익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의 20%로 확대하는 것이다. 업계 추산 기준 노조 요구안이 반영될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 1인당 평균 약 6억원 수준의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는 계산도 나온다.

사측은 조직 내 위화감을 완화하기 위해 DS부문 업계 1위 달성 시 '최고대우'를 보장하는 종합 보상 패키지를 제시했다. 특별 포상과 자사주 지급, 근로 조건 개선, 복리후생 강화 등을 포함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싸늘했다.

삼성전자 DS부문 관계자는 "주식으로 받으면 추가 세금도 있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며 "하이닉스처럼 현금 PS(생산성격려금)로 달라는 것인데, 주식으로 주는 품수 말고 현금으로 달라는 요청"이라고 전했다.

갈등은 DS 내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초기업노조가 과반 지위 유지를 위해 수년째 적자를 이어온 파운드리·LSI 사업부를 끌어안으면서 메모리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 성

과를 낸 메모리 사업부가 적자 사업부와 성과급을 나눠야 하는 구조에 대한 반발이다.

DS부문 관계자는 "파운드리와 LSI는 메모리 사업부 인력을 30% 배치해 놓고 이제 와서 성과급 나눠달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메모리도 결국 제대로 못 받겠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로의 이직을 고민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했다.

여기에 에 DX부문 조합원들이 노조 탈퇴를 단행하며 노조 내부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폰·가전·TV를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부문은 1분기 영업이익이 3조원에 그치면서 성과급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동투쟁본부의 핵심 요구안이 사실상 DS부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DX부문 조합원들은 파업에 동참하면서도 정작 성과급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여기에 반도체 호황 이전부터 쌓인 박탈감이 더해지면서 이탈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 다른 관계자는 "MX(모바일경험)가 잘 되고 성과급을 받을 때 반도체는 이익이 없어서 0%를 받아도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반도체 실적이 압도적으로 커지면서 격차에 대한 박탈감이 커진 것 같다"며 "노조마저 반도체 중심으로만 움직이니 더 이상 같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DX 쪽에 퍼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결국 이 같은 구조적 불만이 탈퇴 러시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인부 홈페이지 탈퇴 신청은 지난달 28일 하루 500건, 29일 1000건을 돌파했다. 지난 일주일간 약 1500명이 탈퇴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부분 DX부문 소속이다. 조합비 자동공제 구조가 탈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파업을 앞두고 노조 지도부의 휴가 및 강경 발언 논란까지 겹치면서 내부 반발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4일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조합원 약 2300명)이 공동투쟁본부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내부 균열은 표면화됐다. 동행노조 측은 "전체 조합원 권익을 위한 안전 발의 및 요청에도 삼성전자 유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측에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협의하려는 의사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7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해 7384.56으로 마감한 6일 오후 서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종가 7300선 마감을 기념하고 있다. /뉴시스

## 꿈의 7000피... 삼전, 시총 1조弗 '새역사'

시총 1조달러 기업 전세계 13곳 뿐 26만 전자, 160만 닉스 '신고가' 코스피 6.45% 오른 7384.56 마감

코스피가 꿈의 '7000'선 고지를 밟았다. 삼성전자는 아시아 기업 중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달러(1555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시총 1조달러는 이른바 '트릴리언 클럽'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 증시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전 세계 기업 중 단 13곳뿐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45% (447.57포인트) 오른 7384.56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7426.60을 찍었다. '7천피' (코스피지수 7000)에 오른 것은 지난 2월 25일 역대 처음으로 6000선을 뚫은 지 47거래일 만이다. 지수가 급등하자 이날 유가증

권시장에서는 올해 8번째 매수 사이드 카가 발동됐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000조원 (6068조원)을 넘겼다. <관련기사 3면>

'7천피'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 '투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6만 전자' '160만 닉스'에 안착한 가운데 전장 대비 14.41%, 10.64% 상승폭을 더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대만 TSMC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로 시총 1조달러 벽을 넘어섰다. 세계 시총순위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와 미국의 유통 공룡 '월마트'를 제치고 11위에 올랐다.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자사 정보기술(IT) 기기에 탑재하는 프로세서 칩 생산 파트너로 삼성전자와 인텔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나타난 대형 기술주 강세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필라

델피아 반도체지수 흐름도 반도체 주가에 힘을 실었다.

시장 참여자들은 반도체가 여전히 싸다고 본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5.6배, SK하이닉스는 4.7배로, 글로벌 동종 업종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미국 메모리 제조업체 마이크론테크놀로지 경우, 최근 선행 PER이 12배 수준이다. 애플(약 32배)과 엔비디아(약 36배) 등 빅테크 기업들도 30배 이상이다.

이날 기관(2조3090억원)과 개인(5760억원)이 차익 실현에 나선 반면,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1348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2면에 계속>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소비자물가 상승률 2.6%... 21개월새 최대폭

데이터처, 4월 소비자물가 동향 중동발 충격... 석유류 물가 22% ↑

중동전쟁발 경제 충격이 국내 물가에도 고스란히 전이됐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 선을 넘어섬, 21개월 사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6% 올랐다. 이는 2024년 7월(2.6%)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과 2월 각각 2.0%로 하락 추세를 보인 바 있다. 이후 중동발 충격을 받은 3월 2.2%로 오른 데 이어 4월에는 이보다 0.4%포인트(p) 뛰었다.

휘발유 등 석유류 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21.9%나 치솟으며, 전체 물가를 0.84%p 밀어 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류 상승 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인 2022년 7월(35.2%) 이후 3년 9개월 사이 가장 컸다.

석유최고가가격제(공급가 상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휘발유와 경유 값이 각각 21.1%, 30.8% 뛰었다. 등유 가격은 18.7% 올랐다.

기름값 여파로 공업제품 전체 물가도 3.8% 상승했다. 이는 2023년 2월(4.8%) 이래 3년 2개월 사이 최대 폭 상승이다. 다만 가공식품 상승률이 1.0%로 전월(1.6%)보다 둔화하면서 공업제품 오름폭을 일부 상쇄했다.

또 유희활주류가 인상에 국제항공료 상승률이 15.9%까지 치솟았다. 전월의 0.8%와 대비된다. 국내항공료(0.8%)의 경우 폭이 미미했지만 5월에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데이터처는 전망했다. 해외단체여행비용도 11.5% 뛰었다. 또 자동차수리비(4.8%)와 인건요일교체료(11.6%)가 크게 올랐고, 나프타 재료를 사용하는 세탁비(8.9%)도 상승 폭이 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벽지·바닥재·페인트 등을 포함하는 주택수선재료가 전월 1.0%에서 3.7%로 오름폭이 커진 것도 전쟁 영향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 외식이나 가공식품 등 예전 눈에 띄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메트로 한줄뉴스



- ▲오세훈,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위해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사진 뉴시스
- ▲국힘, "공소취소 특검,李 권력 동원한 죄 뒤엎기...완전한 독재"

- ▲조국, "평택에 아시아·태평양 시센터 유치할 것...AI영재학교도 신설"
- ▲개혁신당 전성균, "화성을 새롭게 확실시"...4대 공약 교통·교육·경제·행정

- ▲하정우, "북구호소인? 소모적 논쟁"...박민식에 반박
- ▲추경호, "반드시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주호영 모실 것"

# 구윤철 “26조 추경 빠르게 집행… 2% 성장률 지켜낼 것”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 부총리, 한국 경제회복 강조  
2차 추경에는 신중한 입장 보여  
“금리 문제, 한은이 판단할 영역”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올해 2.0% 성장률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율·물가·성장의 핵심 변수는 중동 사태 안정 여부라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정책조합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5일(현지시간) 구 부총리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한국은행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중동 상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성장률을 전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당초 약속한 2.0%는 달성하겠다고”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투자은행(IB) 전망 중에는 2%를 웃도는 수준도 있는 만큼 한국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유가와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은 입장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고 성장세는 예상보다 크게 꺾이지 않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리 문제는 금통위에서 여러 경제 상황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잘할 것”이라며 “부총재가 금통위 멤버인 만큼 그런 분위기를 반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과 건설투자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재정 대응과 관계기관 협력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

고 있기 때문에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예산처 장관과 촘촘하게 정책공조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와의 면담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정책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주식 시장도 전쟁 이전보다 좋아지는 등 시장에서 정책 대응을 평가해주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1차 추경을 집행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을 빠르게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본예산도 729조~730조원 가까이 되는 만큼 그 집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에 대해서는 특정 수준에 대한 직접 평가는 피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과 관련해 “환율 수준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

대해 답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중동 사태가 환율과 물가, 성장의 핵심 변수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한국 경제의 환율이나 물가든 성장이든 중동 전쟁 상황이 얼마나 빨리 안정화되느냐가 가장 키포인트”라며 “그과정에서 변동성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 사태가 거의 3개월 된 부분”이라며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상황이 좋고 세수 상황도 좋지만, 석유 가격 상승에 따른 경유·휘발유 가격과 과열 물가 부담은 예의주시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류가격 관리와 관련해서는 중동 사태의 전제가 중요하다고 봤다. 구 부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 전쟁 상황이 얼마나 빨리 달라지느냐”라며 “가장 좋은 정책은 중동 전쟁이 빨리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마르칸트(우즈베키스탄)=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 쿠팡, 1분기 적자전환… 영업손실 3545억

개인정보 유출사고 보상 등 영향  
김범석 의장 “2분기부터 실적반등”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전경. /뉴스시스

쿠팡Inc가 올해 1분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여파로 4년여 만에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다만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대규모 보상 비용과 일시적인 물류 비효율이 반영된 결과라며 고객 복귀와 인공지능(AI) 투자를 바탕으로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반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6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12조 4597억 원(85억 400만 달러)을 기록했다. 반면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어 영업손실 3545억 원(2억 4200만 달러)을 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225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적자 전환한 수치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손실이다. 분기 적자 기록 역시 2024년 2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처음이다.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는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대규모 고객 보상과 물류망 운영의 비효율이 꼽힌다.

김범석 의장은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실제 주문량이 예측치에 못 미치면서 선제적으로 확보해 둔 물류 인프라가 유휴 상태가 되어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수요가 다시 안정적인 궤도로 회복되면 이러한 인프라 비효율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번 위기를 기점으로 물류 자동화와 상품군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당수 상품이 아직 로켓배송으로 제공

되지 않고 있는데 직매입 카탈로그와 로켓그로스(FLC)의 결합이 이러한 격차를 크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 전반에 걸친 AI 도입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 절감을 실현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마진 확대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성장 사업 부문에서는 대만 로켓배송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대만에서는 자체 라스트마일 배송 네트워크가 대부분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으며 고객 유지율 또한 한국 사업 초기와 유사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질의응답에서는 최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변경 지정한 것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김 의장은 “최근 한국에서 지정된 것을 알고 있으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관할 구역에서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규제 기관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 李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

국민의힘 ‘주거 희망의 종말’ 반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주거 희망의 종말”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되찾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가사는 최근 발표된 KB부동산 전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은 불과 석 달 만에

달라져 있었다.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1월에는 대다수가 집값 상승을 예상했지만, 4월에는 하락을 전망한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였다.

그러나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실제 현장은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임대차 왜곡이라는 삼중고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며 “일부 지표의 하락을 ‘부동산 정상화’로 포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의 시장은 기대가 꺾인 것이 아니라, 생존의 희망이 꺾인 상태”라며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이 아니라 ‘주거 희망의 종말’”이라고 주장했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 VKOSPI 60 돌파… 단기 급등 우려 시선도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 1만 ‘꿈의 7000피’…서 계속

외국인 주식 매수세에 외환시장에서 원화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에 원화 환율은 하락세(원화 가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간 거래 종가는 7.7원 하락한 1455.1원이다.

증권가는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코스피 연간 전망치를 6000~86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목표치 상단 8600은 국내외 증권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노무라증권 등 글로벌 IB들도 최근 코스피 12개월 전망치를 8000~8500선으로 상향했다. 장기적으로 ‘1만피(코스피 1만)’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단기간에 오른 ‘7천피’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미국 투자자들이 메모리 가격 상승세 둔화, 영업마진 상단 근접 인식, 소비자 IT 기기(스마트폰, PC 등)의 수요 감소 등을 우려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7.52% 뚫 60.07를 찍었다. 시장이 기업가치보다 가격변동의 움직임을 쫓는 ‘투기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때 공포지수는 커진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

# 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공개

대한석탄공사 ‘매우미흡’ 5등급 판정

대한석탄공사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부문에서 ‘최저’에 해당하는 5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 IBK기업은행과 LH, 한국동서발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4등급에 그쳤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

사결과’를 공개했다. 관련 평가는 지난 달 30일 허창 재정부 제2 차관이 주재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판정은 5개 등급으로 1등급은 매우 양호, 2등급은 양호,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미흡, 5등급은 매우미흡이다.

총 104개 기관 대상의 심사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최하 등급은 지난 2022년도분 평가 때의

새민금개발공사 이후 처음이다. ‘미흡’인 4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5곳이었다.

재정부는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도 의결했다. 예금보험공사 등 18곳이 3년 연속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중=김연세 기자 kys@)



metro

# K-반도체 훈풍에 정책 기대감까지... 코스피 '1만피' 보인다

AI 수요 타고 실적 눈높이 상향  
상법 개정에 지배구조 개선 기대  
낮은 PBR에 저평가 매력 부각  
조선·방산·로봇으로 온기 확산  
급등락 장세는 향후 부담 요인



ChatGPT로 생성한 '사상 최고치 랠리 속 확대되는 '코스피 7000 시대' 기대감' 관련 이미지.

“한국의 ‘개미’들 사이에 달아오르는 증시에서 ‘나만 소외된다’는 포모(FOMO) 심리가 확산하며 앞다퉀 증시로 몰려 들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 2월 24일)

“미 관세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부각 등에 따른 주가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한국은행 국회 업무 보고, 2월 24일)

코스피 ‘칠천피(지수7000) 시대’가 열렸다. 한국 증시에 대한 여러 경고가 무색할 정도다. 한국 증시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스트업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 등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졌고, 작년 하반기 이후 인공지능(AI) 혁신발 ‘반도체 수퍼 사이클(초호황기)’ 기대가 시장에 퍼진 영향이란 평가다. 하지만 반도체의 힘으로 오르는 증시와 하루에도 수차례 급등과 급락이 교차하는 롤러코스터 시장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특히 주가가 장부가치에도 못 미치는 종목이 늘려 오는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 ◆K-반도체의 힘, 이제 시작이다

코스피 상승세는 거침이 없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의 올해 들어 이날까지 상승률은 71.35%로 주요국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4조달러를 넘어선데 영국(3조9900억달러)을 제치고 세계 주요국 증시 순위에서 8위로 올라섰다.

한국 증시의 차별화된 상승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위기보다 기업들의 실적과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 등이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JP모건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한국 투자 전략 보고서에 코스피 목표치를 최대 8500포인트까지 높여잡았다. IT와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세에 근거해 기본 시나리오 목표치는 7000포인트로, 강세장 시나리오는 8500포인트로 각각 높였다. 이란전 직전인 지난 2월 전망치보다 각각 1000씩 높아진 수치다. JP모건은 “코스피는 다시 6000을 넘어서며 전쟁 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다”며 “올해 이익 추정치가 37% 급등했고 이는 전쟁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충분히 상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8000포인트로 높여잡았다. 골드만삭스는 반도체와 산업재 중심의 펀더멘털 개선을 반영해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코스피 이익 전망치가 220% 성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티모시 모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 전략가는 “반도체 업종의 이익 개선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나머지 시장 역시 48% 수준의 견조한 이익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기술 강세는 한국만의 얘기도 아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중동 분쟁과 분리된 강력한 엔진인 AI 열풍에 올라탄 거대 기술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

다”고 했다. 실제 주요국 증시에서도 연일 주가가 급등하는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종목의 비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 S&P 500에서 AI 관련 기업 비율은 약 45%인데, 이는 챗GPT가 출시된 2022년 말(약 25%)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국내 증시에서도 AI발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율이 43%를 넘어섰다. 올해 초만 해도 이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대만도 반도체 기업 TSMC가 전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쯤이다. 일본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어드밴스드와 컴퓨터 칩 장비 제조업체인 도요일렉트론을 합친 비율이 전체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한다.

◆상법개정 등에 얽고 ‘1만피’ 고지 밟을까  
이제 코스피의 화두는 8000선을 넘어 1만 고지를 밟을 수 있을지다. 주요 증권사들의 전망은 엇갈렸지만, 반도체 랠리가 당분간 지수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원화 약세로 외국인 수급이 흔들리고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다시 불거질 경우 코스피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PBR은 1.4배다. 전 세계 증시 평균(PBR 3.1배), 아시아 신흥국 평균(PBR 2.0배) 보다 낮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스피 당순이익의 컨센서스(시장 예상치)가 600조원을 돌파했고, 반도체 주당순이익(EPS) 변화율을 필두로 이익추정치 상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지수 상승 주도 업종 중 반도체만 급격한 EPS 상승 탓에 지수 밸류에이션 회복은 미흡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근거에는 기초체력이 자리한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금융시장 전반의 리레이팅을 촉발시킬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2026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코스피 시장의 실적 개선은 반도체 중심에서 방산, 조선, 기계, 정유, 에너지, 로봇 등으로 확산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KB증권에 따르면 2026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실적 호전에 힘입어 전년 대비 165% 증가한 792조원, 순이익은 전년 대비 184% 된 606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2027년에는 영업이익의 1044조원까지 예상하면서 10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봤다.

세 차례 상법 개정도 코스피가 ‘1만’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전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소액 주주 보호 장치는 대폭 강화했다.

JP모건은 “(지배구조 관련) 입법 노력은 대부분 완료됐으며, 실제 영향은 철저한 실행과 지속적인 감시로부터 온다”이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업과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과 유사한 20% 수준의 ROE 국가들과 PBR을 비교하면, 향후 코스피는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등과 같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영향으로 PBR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빠르게 확장하는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실적 호전 사이클 진입으로 향후 글로벌 투자자들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짚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야기한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효과도 주목할 포인트”라고 했다.

그러나 과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간판 주식들이 하루 사이 10%가 오르고 내리는 시장은 흔치 않다. 그런데 요즘 한국 증시는 그 보기 드문 장면을 몇 차례나 반복하고 있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에서 “한 나라의 자본시장이 카지노 활동의 부산물이 되어버리면 경제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투기가 시장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란 얘기다.

최근 한국 증시를 보면 이 경고가 낫설지 않다. 급등과 급락이 교차하는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 증시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판’에 가까운 모습이다.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얼마전 코스피의 급등락을 두고 “전형적인 버블 시장”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날도 코스피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 지수(VKOSPI)는 이날 7.52% 상승한 60.07를 기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20<sup>th</sup>**  
국립부경대학교 개교 80주년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용기와 혁신, 도전으로 미래를 여는 강한 대학!’**  
Young Leaders of Pukyong, Let Your Dreams Soar

부산 최초의 대학, 국립대학 최초의 통합이라는 도전의 역사 위에 끊임없이 혁신의 발자취를 새겨 온 국립부경대학교가  
**연구중심대학 | AI혁신대학 | 글로벌혁신대학**으로  
동남권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개교 80주년 기념 및 미래비전 선포식  
2026. 5. 8 (금) 09:30 대학본부 대회의실  
블루 프론티어 어워드 시상

개교 80주년 기념 오픈데이  
2026. 5. 9. (토) 실내체육관  
제18회 자랑스러운 부경인상 시상

국립부경대학교

# 기술투자·현장 경쟁력 포기 안 해... '버티는 경영'의 중요성

SK 하이닉스의 대반전  
AI시대의 총아로

## ② 박노정 사장의 '원팀 리더십'

세계 HBM 시장 점유율 57% 차지  
수출에 역량 집중... '기술경영' 배경  
곽 사장, 현장서 D램 폭락 위기 맞아  
HBM2 개발 당시 난제 함께 해결  
청주 M15랩 HBM 생산라인 전환도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과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확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최태원 회장의 선제적인 투자 판단과 곽노정 사장의 현장 중심 기술 경영이 있었다. 위기의 순간마다 과감한 투자와 집요한 수출 경쟁력을 앞세운 SK하이닉스는 이제 단순한 메모리 공급자를 넘어 고객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SUM MIT 2025'에서 AI시대, SK하이닉스가 그리는 새로운 비전과 기술을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풀 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성과는 시장 점유율에서도 확인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트포인트리서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SK하이닉스의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은 57%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 HBM 경쟁에서도 SK하이닉스의 우

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업 UBS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루빈'에 탑재될 HBM4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약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최초 HBM 개발로 이어진 SK하이닉스의 성공 신화 뒤에는 '수출이 곧 경쟁력'이라는 곽 사장의 철학이 밑바탕

에 있었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곽 사장의 '기술 경영'이 자리하고 있다. 곽 사장은 1994년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에 입사해 30년째 근무하고 있는 'SK하이닉스 맨'이다. 그는 미래기술연구원 공정기술그룹장, 제조·기술부문 D&T 기술그룹장, 제조·기술부문 디퓨전기술 그룹장 등을 거친 반도체 공정 전문가로 꼽힌다.

하지만 곽 사장이 걸어온 길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의 글로벌 AI 메모리 강자로 자리 잡기까지는 회사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했던 흑독한 시간이 있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메모리 업황 침체가 이어지면서 당시 하이닉스는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D램 가격이 1~2년 새 90% 가까이 폭락할 정도로 메모리 경쟁이 과열됐으며 회사 안팎에서는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만큼 위기감이 짙었다. 당시 현장을 지키던 곽 사장 역시 그 한복판에 있었다.

전환점은 2012년이었다. 최태원 회장이 과감한 결단으로 하이닉스를 인수함에 따라 회사는 대전환점을 맞았다.

곽 사장은 이후 구성원들에게 "어둠을 거치지 않고는 밝은 아침을 맞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위기 속에서도 기술 투자와 현장 경쟁력을 포기하지 않는 '버티는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곽 사장의 현장형 리더십은 대표

이사 취임 이전부터 여러 차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했다. HBM2 개발이 한창이던 당시 곽 사장은 제조·기술 부문 핵심 임원으로 개발 현장 최전선에서 기술 난제를 함께 풀어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적층 구조 특성상 발열과 수출 안정화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었다. 내부에서는 열 분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조 설계 변경과 공정 최적화방안이 동시에 검토됐고 곽 사장 역시 엔지니어들과 함께 해법 찾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박 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칩 손상 문제가 발생하자 현장에서는 액상 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공정 방식을 도입하는 등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안정적인 양산 기반을 확보했다.

아울러 곽 사장의 선제적인 판단이 SK하이닉스의 운명을 바꾼 대표 사례로는 청주 M15랩의 HBM 생산라인 전환이 꼽힌다. 2022년 오픈AI가 등장하며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대한 주문도 급증했다. AI 가속기의 핵심 메모리로 꼽히는 HBM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곽 사장은 시장 변화를 빠르게 읽고 청주 M15랩 내 유휴 상태였던 2층 공간을 HBM용 후공정 랩으로 개조했다. 이러한 선택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초고속 성장에 따른 연쇄 수혜를 누리는데 결정적 트리거가 됐다는 해석이 따른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INCHEON PENTAPORT ROCK FESTIVAL 2026**  
JUL 31 - AUG 2  
SONGDO MOONLIGHT FESTIVAL PARK  
송도달빛축제공원 pentaport.co.kr

| 주최 |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 주관 | 인천관광공사 Incheon Tourism | 후원 | 경기일보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Commission

## 혜택 한 번 썼다고 환불 거부? 공연 멤버십 '갑질 약관' 손질

공정위, 17개 공연장·2개 플랫폼  
총 9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는 공연 유료 멤버십 가입 후 할인이나 선예매 혜택을 단 한 번이라도 이용했다는 이유로 연회비 환불을 거부당하는 부당한 관행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등 17개 공연장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 2개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부당한 환불 제한'의 개선이다. 기존 롯데콘서트홀, 부산문화회관, 클럽발코니 등은 혜택을 단 1회라도 이용했거나 가입 후 특정 기간(5~15일)이 지나면 연회비 환불을 일절 금지해 왔다.

공정위는 "일부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전액 환불을 보장하고, 혜택을 이미 사용했다라도 합리적인 위약금만 공제한 뒤 잔액을 돌려주도록 시정했다.

또 사용한 서비스 가액과 이용 기간 금액을 이중으로 공제하던 방식(예술의전당, 국립극장)은 둘 중 큰 금액만 공

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포인트로 환불금을 깎던 인터파크의 관행도 개선되어 현금 환불권이 강화된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도 제동이 걸렸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나 수성아트피아 등에서 시행하던 '사전 통지 없는 게시물 일괄적 삭제' 조항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삭제 사유를 구체화하고, 반드시 작성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재단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등 모호한 사유로 가입을 거절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던 조항도 삭제된다. 특히 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받으면서 탈퇴는 반드시 전화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했던 인터파크와 롯데콘서트홀 등의 약관도 시정돼, 온라인과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퇴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도 대거 수정됐다.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이나 과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료 멤버십 해지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주)오투기 창립 57주년

오투기

원료부터 생산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정직하게 만들고

맛부터 위생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며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57년, 정성을 다해 온 오투기

앞으로도 좋은 식품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 李 “서민, 금융에서 배제되면 안 돼”… 포용금융 의무 강조

“은행은 준공공기관, 공적 책임 필요”  
수익만 추구하는 구조 비판하고  
금융위원회에 서민금융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금융기관을 향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면서 ‘포용 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점을 주시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것이 능사’라면서, 그게 존립 목적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잘 지적하셨다. 욕먹을 일 아니냐”라며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길게 얘기한 걸 간단히 줄여주셨다”고 격려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받는 준공공기관”이라며 “그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고 적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과거 은행들의 토대가 주택은행·상업은행·기업은행 등 특수 금융기관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사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서 수출해서 돈 버는 것과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출 주면서 이자 받아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은)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 일부이기도 하고,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해서

독점 영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그러니까 수익성과 공공성 양쪽이 있는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나 (공공성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저신용자들이 금융에서 배제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예 대상 취급도 안 해주면서 전부 제2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에게 가서 의존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며 “금융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상환 능력을 평균으로 해서 이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금융의 원리”라고 했다.

이어 “그중에는 못 갚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건 당연히 이자로 다 산입돼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그 중에서 아주 유리한 것만 딱 떼 가지고 영업하고, 나머지는 다 방치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서민금융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서민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시시켜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연체 채권 관리에 대해서도 “고용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하고 있더라도 상환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건 시장 예측을 통해 이자에 다 포함시켜서 성실 상환자로부터 미리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지금까지 아주 약하게 마지막 최후의 한 명의 단 1원까지도 쥐어짜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3개월 연 이자를 못 내면 연체 채권으로 관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걸 원금의 10%를 받고 팔아버린다”며 “원금의 10%를 받고 파느니 차라리 (채무자에게) 원금 10%를 받는 것으로 조정해 주는 게 은행은 훨씬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걸 안 한 이유가 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자살자가 엄청 줄어든다. (서민들이) 금융 문제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한다”며 “자살자가 많이 줄었잖나. (포용적 금융) 원인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 ‘성공’

“특검법 처리, 지선 이후 판단할 것  
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 마무리 목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첫 연임 사례다.

소병훈 민주당 원내선관위원장인 이날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후보가 과반 찬성을 득표해 제22대 국회 민주당 3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 투표 80%에 관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치러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이며 민주당의 성공”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부터 중동 위기 극복, 민생 회복까지 할 일이 산적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6일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한 뒤 정청래 대표에게 축하받고 있다. /뉴시스

이어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통령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연말까지 국정 과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조작기소 국조특위’ 후속 조치인 특검 도입에 관해

서는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특별검찰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다만 “특검법 처리 시기, 절차, 내용에 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특검법 처리를 이번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한 셈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결과 발표 전 정견발표에서는 “최우선 과제는 지방선거 승리”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태도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민주당의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물러난 뒤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번 연임으로 제22대 국회 민주당 3기 원내대표로 1년의 임기를 새로 수행하게 됐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 개헌 앞두고 여야 충돌… 국힘 ‘졸속’ 반발

여권 “부분 개헌부터 추진”  
오늘 본회의 개헌안 표결 예정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와 국회 계엄 승인권 도입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분 개헌을 합의 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 전면 개헌은 부담이 너무 커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 요건을 예시로 들어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국회 통제를 강화하지는 않겠다”며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여당과 야당 모두 얘기하는데, 실제 기회가 왔는데 왜 반대하느냐”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정치권이 지금까지 주야장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개헌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개헌안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힘도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께 호소드린다. 민심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를 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개헌안 내용에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시기 상조니 졸속이니 반대 논리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들도 이번 개헌에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 계엄 통제를 강화하는 이번 개헌안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날 면담을 갖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3법과 조작기소 특검법을 거론하며 “위헌적 행태들을 자행하며 헌법을 입에 담는다는 건 너무나 모순적이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개헌하고 헌법을 바꾸면 뭐 하나”라며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위헌적인 공소 취소 특검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장께서 개헌을 고리로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협치를 했느냐”라며 “헌법 조항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살아 있는 헌법 조항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 ‘AI·청년’ 앞세운 與, 박지원·임문영 발탁

군산·김제·부안을, 광산을 출마 유력

더불어민주당은 6일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평당원 출신 박지원 최고위원과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로 평가받는 임문영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발탁인재로 발표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원택 전 의원의 전북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임문영 부위원장은 민형배 전 의원의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로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발탁인재 환영식’을 열고 두 사람의 발탁을 공식화했다.

1987년생인 박지원 최고위원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첫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돼 활동을 이어왔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변호사를 지냈고, 전국 최연소 지역자치단체 체육회장(전북 전주시체육회

장)을 역임했다.

1966년생인 임문영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이다. 살레시오고등학교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한국 PC통신(하이텔) 1세대 IT 전문가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정을 함께하며 디지털·인공지능(AI) 정책의 뼈대를 세운 핵심 참모로 통한다.

정 대표는 박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 주권 가치를 증명한 산증인이자 민주당의 판을 바꿀 차세대 지도자”라고 했다. 이어 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국회와 당 차원에서 적극 보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고 말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가정의 달, 행복을 나누는 마음으로 모두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겠습니다



##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생명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저신신타 | 하나저신금융 | 하나대체투자저신금융 | 하나에프엔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투자 | 핀크

# 은퇴 이후 생활비 3.3억 부족... 예·적금 만으로 마련 어려워

## 주식 전성시대와 재테크

### ① 왜 지금 '노후 재테크' 인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노후 재테크'가 중요해지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은퇴 이후 30년에 달하는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연금제나 예·적금 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지출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소득 수준, 적정 생활비 등을 고려해 어떤 투자전략을 준비해야 할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장수하는 것이 리스크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아 놓은 돈은 많지 않다.”

“최근 주식시장이 활황이지만 선풍 투자하기가 겁난다. 은퇴자금이어서 위험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100세시대가 현실화하면서 노후 자금 마련이 모두의 화두가 됐다. ‘건강이 돈’이라는 말도 많이 회자된다. 오래사는 것이 리스크가 된 현실이다.

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7세다. 만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의 66.7세와 비교해 16.7년 늘었다. 2024년부터 만 60세가 된 국민의 기대여명은 남자가 23.7년, 여자가 28.4년이다. 법적 정년인 60세를 고려하면, 길게는 30년이 넘는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 ◆ 길어진 노후, 재정부담도 커졌다

국민 대다수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를 주요한 노후수단으로 꼽지만, 올해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지급액은 69만8000원에 불과하다.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합쳐도 104만7700원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이 조사한 기대 노후생활비인 197만 6000원(1인 가구 기준)과 비교해 약 91만 원 가량 부족하다.

평균적인 수준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30년의 노후를 가정한다면, 노후생활비의 부족분은 약 3억2800만원이다. 은퇴 이전부터 예·적금, 채권, 주식, 펀드(집합투자증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해 자산을 증식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노후 재테크’가 중요해진 배경이다.

과거 1990~2000년대에는 은행권 예·적금 수익률이 연 10% 이상이어서 예·적금 만으로도 자산증식이 가능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둔화와 금리 하락으로 예·적금 금리도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취급된 정기예금(1년 물, 단리)의 평균 취급금리는 연 2.8%다. 지난 2025년 물가상승률(2.1%)과 비교해 0.7%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이자소득세를 고려하면 체감 수익률은 연 0.59%에 불과하다.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비(非)예금성 금융자산에 적극 투자해야 하는 이유다.

### ◆ 자산시장 정책 재편... 쉬워진 투자

예·적금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는 개인 투자자의 자산시장 투자를

은퇴 이후 기대수명 30년 달해 금투세 폐지 등 정부서 투자 독려  
주식·펀드 투자시 ISA 개설 유리  
22일 출시 ‘국민성장펀드’ 주목  
소득공제에 원금손실 20% 보전  
20~30대, 고위험 상품 투자 적절  
중·장년, 안전-위험자산 분배 필요

독려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4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전격 폐지됐고, 올해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분리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시행됐다.

주식·펀드 등 상품에 투자한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우선 개설하는 것이 좋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급 가능한 ISA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최대 연 400만원(서민형 기준)의 투자소득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기존 ISA계좌의 혜택을 강화한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도 출시된다.

오는 22일 출시되는 ‘국민성장펀드’

도 주목할 만 하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국가가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개인투자자의 원금 손실을 최대 20%까지 보전하며, 투자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1인당 투자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됐다.

직접 투자가 어렵다면 퇴직연금(DC형·개인형 IRP),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을 활용한 ‘간접 투자’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해당 상품들은 ETF(상장지수펀드), 펀드, 리츠 등 간접 투자 상품에 투자하며,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는 만큼 손쉽게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은 합산 연 900만원의 납입액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만큼 우선해서 적립 및 운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 세대별 ‘분배전략’ 중요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선 은퇴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자산의 위험도를 분배해야 한다.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20~30대 청년세대라면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고위험 상품에 적극 투자할 수 있지만, 40~60대의 중·장년이라면 안정적인 자산 구축을 위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은퇴 이후에는 안전자산과 월 소득 중심으로 자산을 재편하는 것이 좋다.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질병이나 재난 등을 이유로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은퇴를 전후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했다면 배당 중심의 ‘고배당주’ 중심의 투자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고배당주는 연 배당률이 주가 대비 5% 이상인 주식을 말한다. 분기·반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만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며, 기대수익률도 은행 예·적금보다 높다.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 증식도 기대할 수 있다. 통상 수익이 안정적인 은행주와 일부 대기업 주식이 고배당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국내 상장사들이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분기·반기 배당을 정례화 하면서, 고배당주 투자도 주요한 투자 전략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국내 고배당주에 분산투자하는 ETF 상품도 출시해 판매 중이다. 국내 주식은 배당 시기가 2월·5월·8월·11월로 일정한 편이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배당 시기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는 만큼 분산 투자 시에는 매달 배당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한 시중은행의 자산관리전문가(PB)는 “은퇴까지 시간이 많은 청년세대는 손실이 발생해도 만회할 시간이 많은 만큼,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고위험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은퇴가 가까워지는 중·장년층이라면 자산을 중위험 상품과 원금보장형 상품에 분산 투자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동성이 충분하다면 수익률이 안정적인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예대금리차 확대’ 가계 소비여력 제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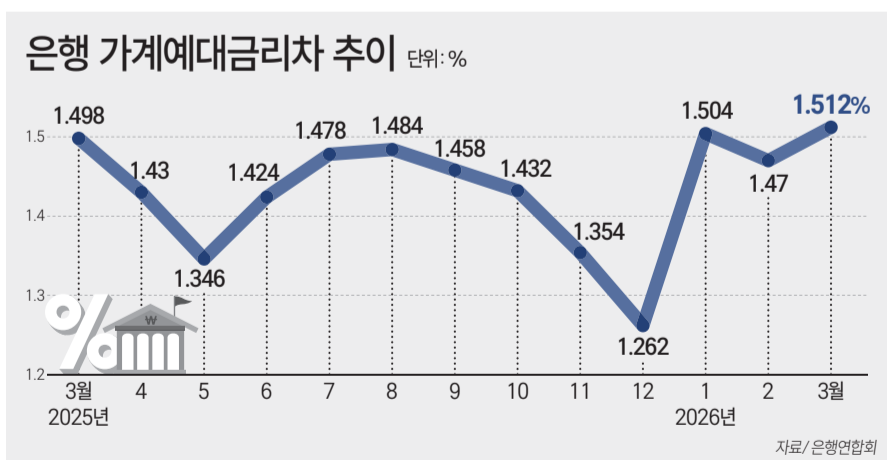
5대은행 예대금리차 평균 1.512%  
지난해말 1.261% 대비 0.25%p ↓

가계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예대금리를 웃돌면서 소비여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는 평균 1.512%를 기록했다. 지난해말(1.262%)와 비교하면 0.25%포인트(p) 확대됐다.

가계예대금리차는 은행이 가계에 대출해 줄 때 받는 금리(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예대금리)의 차이를 말한다. 금융권에서는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예대금리를 웃돌면서 금리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금리는 3월 기준 연 4.19~4.33%이지만 지난해 말 3.99~4.30%로, 상단은 줄었지만 하단이 0.2%p 상승했다. 반면 예대금리(1년 만기)는 지난해 말 2.87~2.95%에서 같은 기간 2.85~2.97%로 소폭 변동에 그쳤다. 대출금리는 상승한



반면 예대금리는 제한적인 변동에 그치면서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가계예대금리차 확대가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가계 소비 여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매판매액지수가 한 달 새 11.3% 상승하며 소비는 외형상 회복세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물가가 2.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대비 2.3% 오른 뒤 ▲1월 2.0% ▲2월 2.0% ▲3월 2.2% ▲4월 2.6% 상승했다.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개선 폭은 제한적이라 분석이다.

향후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4월 기준 2.9% 수준을 유지하며 고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리 부담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이어지면 향후 소비 회복세도 제한적일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대금리차 확대는 은행 수익성에는 긍정적이지만 가계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8만명 넘어서

국토부, 지난달 855건 최종 가결  
LH, 피해주택 누적 8357가구 매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국민이 누적 3만8000명을 넘어서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에서 총 2047건을 심의해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 누적 개최 횟수는 100회에 달했다.

가결된 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66건은 이의신청으로 추가 요건이 충족된 사례다. 74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도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8503건이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가결 비율은 61.0%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167건이 결정됐다. 정부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6만3568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

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8357가구를 집계했다. 올해 들어 3360가구를 매입하며 월평균 매입 건수는 840가구를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매입건수는 655가구였다.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정한다.

정부는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 대위변제 후 피해자가 최대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함께 잔여채무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자세한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 K-배터리, ESS용 LFP 양산 속도 탈중국 등 글로벌 수주 역량 극대화

ESS 시장 중심 성장동력 강화

포스코퓨처엠 포항공장 등 생산 확대 엘앤에프 하반기 비중국 LFP 양산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된 사이 ESS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을 갖춘 LFP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 엘앤에프 등 국내 양극재 업체들은 ESS용 LFP 양극재 양산 체계를 구축하며 비중국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다. ESS는 전기차보다 무게 부담이 적고 가격과 안정성이 중요한 시장이어서 LFP 적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여기에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산 배터리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국내 업체들은 LFP 양극재 공급 기반을 넓히며 수주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엘앤에프는 올 하반기 국내 최초로 비중국 LFP 양극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하반기 3만톤, 내년 상반기 3만톤 등 총 6만톤 규모의 생산 체계를 단계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ESS 시장에서 비중국산 LFP 양극재 수요가 늘어나



포스코퓨처엠 포항 양극재 공장 전경. /뉴시스

는 만큼 초기 공급 기반을 선점해 수주 기회를 넓혀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퓨처엠도 ESS용 LFP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포항 양극재 공장 일부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해 올해 말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는 신규 LFP 공장도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하이니켈 양극재 중심 제품군에 LFP를 더해 전기차와 ESS 수요 변화에 동시에 대응하는 구조다.

LFP 양산 준비와 함께 차세대 소재 개발도 병행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전고체 배터리 소재 확보를 위해 미국 스타트업 팩토리얼 에너지와 협력하고 있다. 미국 배터리 소재 기업 실라와는 포스코퓨처엠의 양·음극재 기술에 실라의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결합해

첨단 배터리 소재 기술을 고도화하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과는 무음극 리튬메탈 배터리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차세대 소재 포트폴리오도 넓히고 있다.

실적 측면에서도 ESS용 LFP 확대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분기에는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 확대와 고부가 제품 판매가 실적 회복을 이끌었다면 향후에는 ESS용 LFP 물량이 추가 성장 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엘앤에프는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 확대와 판가·환율 상승 효과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7396억원, 영업이익 117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2.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포스코퓨처엠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7575억원, 영업이익 177억원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4%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3.2% 늘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ESS용 LFP 배터리 물량 확대는 양극재와 부품·원자재 기업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원자재 확보부터 양극재 생산까지 밸류체인을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완성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도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 K-전력기업, 북미시장 정조준 초고압 등 고부가 솔루션 공개

IEEE PES T&D 2026

LS일렉트릭 고신뢰 배전 시스템 소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생산 역량 뽐내

국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와 노후 전력망 교체, 재생에너지 연계 수요가 맞물리면서 초고압 송전·직류 배전·해저케이블 등 고부가 전력 솔루션을 앞세운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S일렉트릭과 대한전선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열린 'IEEE PES T&D 2026'에 참가했다. IEEE PES T&D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가 주관하는 북미 대표 송배전 등 전력인프라 전문 전시회다.

LS일렉트릭은 직류(DC) 솔루션과 초고압 송변전 설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용 배전 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웠다. 북미 시장 진출에 필요한 UL 인증 직류 배전반을 비롯해 345kV급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스택콤(무효전력보상장치) 등 전력기기 라인업을 소개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효율과 안정성이 동시에 중요해지면서

직류 배전과 고신뢰 배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천안사업장에 직류 배전을 상용화한 'DC 팩토리'를 구축한 경험을 기반으로 산업 현장 적용성과 데이터센터 대응 역량을 강조했다.

대한전선은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해저케이블, 노후 전력망 교체 솔루션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미국에서 수주한 320kV급 HVDC 지중케이블을 비롯해 525kV급 HVDC 지중케이블, 국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적용 가능한 525kV급 HVDC 해저케이블 등을 선보였다.

해저케이블 분야에서는 2027년 준공 예정인 당진 해저케이블 2공장의 생산역량과 건설 현황도 공유했다. 해상풍력 전용 CLV 포설선 '팔로스'호와 해저케이블 전문 시공법인 대한오션웍스를 함께 소개하며 제조부터 시공까지 이어지는 토탈 솔루션 역량을 부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북미 전력 시장은 노후 전력망 교체와 AI 데이터센터 증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고사양 전력기기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며 "현지 인증과 납품 레퍼런스를 확보한 기업일수록 초고압·배전·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수주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전동화·리무진 '럭셔리 진화'... 프리미엄 MPV 방향 제시

YG의 CAR TALK **자동차**

현대차 '스타리아'

천연가죽 시트 등 사용자 경험 개선

"스타리아는 현대차의 프리미엄 MPV 미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철민 현대차 국내 마케팅실 상무)

현대자동차가 프리미엄 다목적차량(MPV) 시장 공략을 위해 스타리아 라무진 모델 '더 뉴 스타리아 리무진'을 출시했다. 프리미엄 MPV 시장은 국내는 물론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 오토 차이나 2026에서도 글로벌 브랜드들이 MPV 차량을 선보이는 등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스타리아 리무진은 과거 승합차의 이미지를 지우고 럭셔리 의전 차량으로 진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전기차 모델인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도 추가해 최근 전동화 전환 트렌드에 속도를 맞추고 있다.

이번에 현대차가 출시한 스타리아 리무진 6인승 모델에는 2열 전용 프리미엄 시트 '이그제큐티브 시트'를 적용했다. 최고급 세미 애널린 천연가죽을 적용했다. 이 소재는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G90 롱휠베이스 모델에 사용된 소재다. 최고급 원피에 가공과 코팅을 최소화해 천연가죽 본연의 부드러운 촉감과 자연스러운 주름이 그대로 살아있는 프리미엄 가죽이다. 이그제큐티브



현대차 스타리아 리무진 외관.



현대차 스타리아 리무진 실내 루프 전방에 탑재된 풀딩형 17.3인치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돼 이동 중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고급 수입차에서만 볼 수 있는 투톤 컬러도 적용했다. '트와일라잇 호라이즌 투톤'이라고 불리는 이 옵션은 ▲어비스 블랙 펠, 캐스트 아이언 브라운 펠 ▲어비스 블랙 펠, 로버스트 에메랄드 펠 등 2가지다.

스타리아 리무진은 하이브리드 6인승, 하이브리드 9인승, 일렉트릭 6인승 등 총 3가지 라인업을 운영한다. 1.6터보 하이브리드 ▲6인승 6909만원 ▲9인승 5980만원(개별소비세 미적용) 일렉트릭 ▲6인승 8787만원이다. 스타리아 리무진 일렉트릭은 6인승의 경우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으면 8500만원 이하로 가격이 형성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ysw@

## 현대로템, '한국형 고속철도차량' 수출 결실

우즈벡 영업운행... 글로벌 공략 속도

현대로템은 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우즈벡)에서 신규 고속차량의 영업운행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국산 고속철도차량이 해외에서 상업운행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고속차량은 수도 타슈켄트와 서부 지역의 실크로드 대표 도시 하바를 잇는 약 1020km 노선에 투입됐다. 이번 개통은 국내 고속차량 산업 생태계에도 의미가 있다. 한국형 고속차량은 해외 수출을 장기 목표로 20년 넘게 민관이 연구개발과 안정화 단계를 거쳐왔다.

현대로템은 이번 우즈베키스탄 고속



현대로템 우즈벡 고속철의 모습. /현대로템

차량 상업운행 실적을 향후 해외 고속철도 사업 공략의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국산 고속차량 수출 거점을 확대해 K-철도 산업의 동반 성장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chale@

## LG전자, AI 홈 연구공간 '씽큐 리얼' 재단장

LG전자가 AI 홈 솔루션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 온 연구 공간을 4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LG전자는 6일 미국 LG사이언스파크 내 AI 홈 연구공간 '씽큐 리얼(ThinQ Real)'을 리모델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현실감'이다. 100㎡ 규모로 30평대 국민주택을 그대로 재현한 내부에는 현관부터 거실, 주방, 침실, 드레스룸, 욕실까지 갖췄으며, 인테리어 마감재·배선·조명 설계 역시 실제 가정집 수준으로 맞췄다. 여기에 AI 홈 허브 '씽큐 온'을 중심으

로 수십 종의 AI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센서를 연동했다.

이 공간에서 LG전자 연구원들은 신규 AI 기술과 자동화 시나리오를 실험·검증한 뒤 AI 홈 솔루션에 반영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축적되는 생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알고리즘을 지속 고도화한다는 계획도 병행된다.

정기현 LG전자 HS플랫폼사업센터 부사장은 "씽큐 리얼에서 쌓이는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AI 홈 솔루션을 빠르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 EU '중국산 인버터 배제'... 국내 PCS 업계 기회 열리나

〈전력변환장치〉

## 전력망 보안에 장비 재편 가속

LS일렉트릭 英 ESS 실적 부각  
HD현대일렉트릭 장비 확대  
효성중공업 ESS 사업 다변화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렸던 국내 전력 변환 장비 업계에 유럽발 공급망 재편이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전력망 보안을 이유로 고위험 국가산 인버터를 배제함에 따라 ESS용 전력변환장치(PCS) 등 국내 기업들이 레퍼런스를 쌓아온 분야를 중심으로 비중국산 장비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지난 4월 역내 자금이 투입되는 에너지 사업에서 중국 등 고위험 국가산 인버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태양광·풍력·ESS 전력을 전력망에 연결하는 인버터가 사이버 공격이나 원격 제어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U는 유럽산 제품과 한국·일본·미국·스위스 등 유사 입장



LS일렉트릭 데이터센터월드 2026 전시 부스 조감도.

LS일렉트릭

국가 제품을 중심으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인버터 시장은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은 전 세계 인버터 공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우드맥켄지에 따르면 화웨이와 선그로우

는 10년 이상 글로벌 인버터 시장 1·2위를 유지하며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가격 중심 경쟁이 강해 중국 업체들이 점유율을 키워왔고,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을 갖추고도 가격 경쟁에서 밀려

존재감을 확대하지 못했다.

국내 기업들은 PCS 분야에서 운영 경험을 일부 축적해 왔다. 태양광 인버터와 ESS용 PCS는 직류(DC)를 교류(AC)로 변환한다는 기본 원리는 같지만, PCS는 충·방전 제어와 출력 조절, 계통 안정화 기능까지 수행해야 해 기술 난도가 더 높다.

대표 사례는 LS일렉트릭이다. LS일렉트릭은 영국 보틀리 지역에서 50MW급 PCS와 114MWh 규모 ESS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영국 전력망 사업자인 내셔널그리드 연계 실적을 확보했다. 북미 PCS 1위 업체인 파워일렉트로닉스와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 수주도 추진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자회사 HD현대플라스포를 통해 인버터 등 전력변환 장치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효성중공업도 ESS·PCS 중심으로 사업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이번 흐름은 미국 변압기 시장과 닮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공급 부족에도 중국산 변압기 도입을 제한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처럼, 전력망 핵심 장비가 안보 이슈와 연결될 경우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도 재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내 시장은 여전히 중국산 비중이 높지만, 최근 정부와 업계는 중소 인버터 업체와 제조업자개발 생산(ODM) 협력을 확대하며 국산화 기반을 다시 넓히고 있다. 유럽에서 비중 국산 장비 수요가 커질 경우 국내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해외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고 중앙 제어 기반 전력망 운영이 강화될수록 인버터는 단순 전력 변환 장치를 넘어 전력망 제어 핵심 장치로 역할이 확대된다"며 "보안 이슈가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경우 국산 장비 채택 논의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 중기부 장관·차관도 땀다... '모두의 창업' 열기 확산

한성숙 장관, 대구대서 청년 간담회  
이병권 2차관, 동신대 창업 콘서트

'모두의 창업' 열기를 띄우기 위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차관이 모두 나서고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는 2만명을 넘어 3만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성숙 장관은 이날 오후 경북 경산 대구대학교를, 이병권 제2차관은 전남 나주 동신대를 각각 찾아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의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며 "이러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찾은 대구대에선 창업을 준비하면서 겪는 애로사항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이 3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 창업 활성화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갔다.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과 실제 창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구대 창업동아리 최서현 학생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정보 접근성 등 창업 준비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의 창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면서 "신체적 제약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대를 졸업한 청년 창업가 대부분

나도연 대표는 "후배 창업가들도 지역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스스로 선을 긋기보다 중기부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든든한 창업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꿈을 펼치길 바란다"며 후배들을 응원했다.

이병권 제2차관은 동신대에서 '로컬 창업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이 차관은 "로컬창업은 지역의 자원과 이야기가 경쟁력이 되는 창업 방식"이라며 "청년들의 지역기반 창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크콘서트 이후 이 차관은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지역 대표 시장인 굴비골영광시장을 방문해 주요 품목 가격 흐름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물가 동향도 점검했다.

한편, 전기설비 및 구조물에 대한 수해 취약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배수시설 관리 상태와 비상 대응체계 등을 포함한 장마철 이전 시장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이날 구매한 물품은 관내 취약 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캠퍼스 현장 방문을 공고 마감 전까지 이어가며 청년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25일(4월19일)만에 신청자가 1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하루 평균 800명 이상의 도전자가 이어지며 이달 1일에는 2만 번째 도전자가 탄생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에이스침대

궤도와 수면 고민상담  
과학 해법 영상 공개

에이스침대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협업한 스트리트 인터뷰 콘텐츠 '전지적 잠견시점'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6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전지적 잠견시점'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겪는 현대인들을 거리에서 만나 수면 고민을 듣고, 이에 대한 해법을 유쾌하게 제시하는 콘텐츠다. 특히 오후 2시만 되면 졸음이 몰려오는 직장인과 MZ세대의 현실적인 사연에 집중해 시민들의 반응과 소통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궤도는 에이스침대가 전개하는 TVCF 세계관인 '이상한 과학의 나라 ACE'속 수면 과학 연구소장 '궤소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영상에서도 워트 넘치는 '과학적 참견'을 선보인다. 여의도공원에서 점심 식사 후 피로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을 만나 나른함의 원인을 분석하고 숙면을 위한 과학적 팁을 제시한다.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는 각기 다른 라이프스타일로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청년층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전달한다.

영상은 현장의 재미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구성으로 눈길을 끈다. 시민과 함께하는 '궤소장을 이겨라' 게임을 비롯해 수면 관련 오해를 풀어보는 '양자택일·OX 퀴즈',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전달하는 '5자·30초 수면 솔루션' 등 다채로운 포맷을 도입했다.

한편 에이스침대는 최근 고객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다각화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중소 ESG 대응, 진단 넘어 투자까지 잇는다

대중기협력재단, KOTRA 업무협약  
CBAM 등 글로벌 규제강화 공동 대응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협력재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 ESG 대응을 추가 지원한다.

대중기협력재단은 KOTRA와 글로벌 ESG 규제 대응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ESG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중소·중견기업까지 대응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개별 기업 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공급망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들은 ESG 규제 대응에 필요한 진단부터 투자까지 연계된 지원을 받는다.

KOTRA는 글로벌 ESG 규제에 대한 진단과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대중기협력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설비 도입, 인증 취득, 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후속 투자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기존처럼 진단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과 투자로 이어지는 '실전형 ESG 지원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 VC협회, 삼일PwC와 스타트업 육성 맞손

팁스·스케일업 팁스 기업 대상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가 삼일회계법인(삼일PwC)과 손잡고 팁스·스케일업 팁스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다. VC협회는 삼일 PwC와 6일 서울 서초구 협회 사무실에서 '스타트업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팁스 및 스케일업 팁스 선정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팁스(TIPS)'는 민간투자가 유망 기술창업 기업을 먼저 발굴·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

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스케일업 팁스는 초기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이 필요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게 투자와 R&D, 기술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팁스 및 스케일업 팁스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 발굴·선별 ▲전문 경영자문 및 멘토링 ▲네트워킹 이벤트 개최 ▲투자유치 연계 등 스타트업 성장 전 주기에 걸친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과 세미나 운영을 통해 기업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 구글, 제미니이 맞춤형 광고 띄우고 네이버는 커머스 묶어 AI 구매 전환

검색, 대화형 인터페이스 전환  
구글, 제미니이 광고 도입 가능성  
네이버, 검색·쇼핑 등 AI 통합 연결  
플랫폼 체류시간 확보가 핵심 경쟁력  
광고·답변 경계 모호... 신뢰도 우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검색 시장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AI 광고'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단순히 광고를 AI 서비스에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검색 자체가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전환되면서 기존 광고·커머스 수익 구조 전반이 재편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AI 챗봇 '제미니이' 광고 도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뒀다.

구글의 필립 슌들러 최고사업책임자(CBO)는 지난달 30일 열린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2026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AI 모드에서 효과적인 광고 형식이 검증된다면 제미니이 앱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글은 제미니이 광고 계획에 선을 그어왔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다. 이미 구글 검색의 'AI 오버뷰' 영역에서는 광고 노출 실험이 진행 중이며, AI 검색 결과 안에 쇼핑·텍스트 광고를 삽입하는 구조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기존 키워드 기반 검색 광고 시장이 AI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용자가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는 대신 AI와 대화하며 정보를 얻기 시작하면서, 광고 역시 검색 결과 상단 배너 형태가 아닌 '대화형 추



인터넷 광고 시장이 기존 검색 방식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빅테크들의 검색서비스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최근의 검색시장 변화 추세를 AI로 생성한 이미지.

/Gemin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천'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구글은 AI 기반 검색 서비스 'AI 모드'와 AI 오버뷰를 중심으로 광고 모델을 시험 중이다. 기존 검색 광고·쇼핑 광고·퍼포먼스 맥스 캠페인 등이 AI 응답 내부 또는 상하단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AI 검색 전환에 속도를 낸다. 네이버는 올해 2분기 'AI 탭' 베타 서비스를 예고하며 검색·쇼핑·플레이스·결제 등을 AI로 통합 연결하는 구조를 준비 중이다.

특히 네이버는 구글과 달리 '검색 광고' 자체보다 커머스 연결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사용자가 AI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품 추천, 쇼핑, 예약, 결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국내 쇼핑·플레이스·페이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AI 커머스 전환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 광고 노출 경쟁이 아니라 'AI 기반 구매 전환' 경쟁으로 시장 축이 이동하

고 있다는 의미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기존 검색 광고는 사용자가 직접 클릭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였지만, AI 시대에는 추천·대화·구매가 하나로 연결된다"며 "누가 더 오래 사용자를 플랫폼 안에 머물게 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I 광고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광고와 일반 답변 경계가 흐려질 경우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공개된 해외 연구에서는 일부 AI 모델이 기업 수익을 우선해 특정 상품을 편향적으로 추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업계는 앞으로 AI 검색 경쟁이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 광고·커머스·콘텐츠 생태계를 모두 포함한 '플랫폼 전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본다. 검색창 중심 인터넷 시대가 저물고, AI 대화형 중심의 새로운 인터넷 질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 LG U+, '유독'서 OTT 결합 프로모션

VIP 멤버십고객에 4000원 할인  
신규고객 티빙 할인 프로모션도

LG유플러스는 OTT 결합 상품 신규 고객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복수의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기획했다. 고객에게는 콘텐츠 선택의 폭을 넓히고 체감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행사대상은 더블 스트리밍 연간권이 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VIP 멤버십고객에 4000원 할인 제공하는 'VIP콕' 혜택을 더하면 월 1만4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티빙 이용권을 12개월 동안 3000원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자사 구독 플랫폼 '유독'에서 진행되며, 행사 기간은 6월 30



LG유플러스 직원이 해당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일까지다.

조용성 LG유플러스 제휴사업담당(상무)은 "앞으로도 OTT를 비롯해 AI, 라이프 혜택 등 통신과 결합해 고객의 생활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구독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민선 기자

## NHN KCP, 데이터 기반 가맹점 경영 지원

플랫폼 'KCP 비즈파트너' 선별  
AI 매출 분석으로 의사결정 도와

NHN KCP가 6일 온·오프라인 결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KCP 비즈파트너'를 출시하고 데이터 기반 가맹점 경영 지원에 나선다.

'KCP 비즈파트너'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 결제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통합 관리 플랫폼이다. 복잡해진 결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NHN KCP의 결제 인프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했다.

기존에는 가맹점주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을 각각 다른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했지만, 이번 플랫폼은 이를 단일 화면으로 통합해 매출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한 기능도 강화했다. 본사는 여러 가맹점의 매출과 정산

데이터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으며, 가맹점별 매출 흐름과 이력 관리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과 관리 투명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AI 기반 매출 분석 기능이 핵심이다. 단순 데이터 조회를 넘어 축적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매출 흐름까지 예측한다. 이를 활용해 재고 운영, 인력 배치, 프로모션 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을 보다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케팅 기능도 포함했다. 카드 결제 기반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해 신규·재방문 고객 비중과 매출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어 별도 비용 없이 고객 특성을 파악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하다.

NHN KCP 가맹점은 추가 비용 없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데이터 분석 도구 도입이 부담이었던 중소기업의 디지털 운영 환경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빛나 기자

## 삼성SDS, 예결원 토큰증권 플랫폼 사업 수주

발행량·유통 규모 실시간 파악  
투명 관리 '총량관리시스템' 구축

삼성SDS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토큰증권 플랫폼 운영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에 활용하는 분산원장(DLT) 기술로 발행·관리되는 증권이다. DLT는 거래 내역을 여러 곳에 나눠 보관하는 기술이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소유권·배당 등의 권리를 디지털 형태로 기록하고 거래할 수 있다.

삼성SDS는 2024년부터 토큰증권 기능분석 컨설팅과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관련 역량을 키워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토큰증권의 발행량과 유통 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총량관리시스템을 구현한다.

이 밖에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노드 운영 및 관리 체계 마련 ▲분산원장 시스템 구성 등 전반적인 IT 인프라도 함께 제공한다. 2027년 2월 구축이 목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존 전자증권 계좌 체계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데이터를 연결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관리 관리 기능을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삼성SDS 이정현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그동안 축적한 토큰증권 사업 경험과 블록체인, IT 인프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자산 분야의 대표 성공 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

## 일레븐랩스, 스폰랩스에 AI 음성 솔루션 공급

스폰랩스, 협력 통해 '팟노블' 선별

일레븐랩스는 오디오 플랫폼 기업 스폰랩스에 AI 음성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스폰랩스는 신규

오디오 소셜 서비스 '팟노블'을 선보인다. 일레븐랩스가 AI 오디오 콘텐츠 제작 기반인 음성 솔루션을 제공해 품질 경쟁력과 제작 효율을 높인게 특징이다. 스폰랩스는 제작 과정을 재설계해 라이브 오디오 중심 사업에서 스토리 기

반 오디오 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했다.

앞서 스폰랩스가 국내의 TTS 솔루션을 대상으로 진행한 테스트에서 일레븐랩스의 AI 음성 기술이 문맥을 파악하고 연기에 가까운 발화를 구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 기준은 문장 부호에 따른 억양 변화와 기쁨, 슬픔, 분노 등 문맥 기반 감정 표현력 등이다.

/조민선 기자

## KT, 외곽지역에 LTE 시내전화 서비스 실증

도서·산간지역 통신 사각지대 해소

KT가 농어촌 등 외곽 지역에 LTE 무선망을 구축해 통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KT는 LTE 무선망을 활용한 시내전화 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유선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의 시내 전화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는 1983년 전기통신사업법 도입 이후 유선망을 기반으로 시내전화를 제공하던 기존의 구조에서 무선망으로 확장하는 최초 사례라는 게 KT측의 설명이다. 통신망 구축 체계가 다양화되고, 기술 방식에 관계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선망 기반 서비스는 설치, 이



KT는 '무선망 기반 시내전화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KT가 국내의 산간 오지 지역에서 보편적 통신 서비스를 위해 통신망을 구축하는 모습.

/KT

동이 쉽고 자연재해 등 장애에도 강해 서비스 안전성 높다. 향후 통화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종합 검토하고, 적용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 반도체·주주환원·수급 '3박자'... SK스퀘어, 황제주 입성

주가 120만원 넘기며 시총 3위 등극  
SK하이닉스 지분 약 20% 보유  
펀드 규제로 대체 투자 수요 유입  
증권가 목표주가 100만원 이상 올라



SK스퀘어 본사 T타워

/SK스퀘어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효성은 '인공지능(AI)' 바람을 탔다. 올해 주식 시장에서 1주당 100만원을 돌파한 종목, 일명 황제주에 오른 배경이다. 그렇다면 SK스퀘어는 왜 올랐을까?

SK스퀘어가 6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108만90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황제주'에 올랐다. 올해 들어서만 195.92% 올랐다. 거침없는 상승세에 SK스퀘어는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를 제치고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3위(우선주 제외)까지 경종 뛰어올랐다. 증권가는 목표 주가를 100만원대로 올려잡았다.

연초 만해도 4곳에 불과했던 황제주는 K증시 불장 바람을 타고 9개로 불어났다. 효성중공업(459만7000원), 두산(179만원), 태광산업(116만2000원), 고려아연(174만7000원), SK하이닉스(160만1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148만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3만3000원), HD현대일렉트릭(138만9000원), 삼양식품(129만4000원) 등이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최근 황제주가 늘어난 건 한국 증시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중동전쟁이라는 우울한 환경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SK스퀘어의 상승세에는 이유가 있

다.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 상승이 짝이다. 지분율은 약 20%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고대역폭 메모리(HBM)뿐만 아니라 서버용 D램,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eSSD), 저전력 D램(LPDDR) 등 전 영역에 걸쳐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나타나면서 1분기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급성장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37조6103억원을 거두며 영업이익률

72%를 기록했다.

주주가치 제고 노력도 투자자를 불러 모은다. SK스퀘어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5조9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SK스퀘어는 지난해 2000억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행했고 올해는 올해는 21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현금 배당 2000억원도 예정돼 있다.

SK하이닉스와 주가 상관관계가 98%에 달해 SK하이닉스를 직접 담기 어려운 일부 펀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단일종목 10% 룰'에 따라 주식형 펀드는 단일 종목을 10% 이내에서만 편입할 수 있다.

증권가는 눈 높이를 올려잡고 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실적 성장은 배당금 확대로 이어져 SK스퀘어의 현금 흐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렇게 유입된 풍부한 자원은 다시 동사의 주주환원 규모 확대와 반도체 산업 관련 M&A(인수합병) 투자로 이어지며 기업 가치를 지속해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74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올려잡았다. 안 연구원은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 비중이 작아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중 확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수급적 장점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SK스퀘어의 시총이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며 다섯 번째 100조원 기업이 됐다"면서 "임직원 84명 기준 인당 시총 1조2000억원으로 국내 최고"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76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반도체 투자 열기는 ETF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이날 기준 SOL A1반도체TOP2플러스 ETF의 순자산은 1조원을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해당 ETF가 SK스퀘어를 주요 편입 종목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지분 약 20%를 보유한 SK스퀘어를 함께 편입하며 AI 메모리 슈퍼 사이클 수혜 기대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 AI·로봇에 직접 투자... '국민성장펀드' 판매

6000억 규모... 22일부터 선착순  
정부가 손실 일부 부담해 안정성 ↑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이달 말부터 일반 국민 대상으로 판매한다.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결합해 첨단산업 투자 생태계를 키우고, 성장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약 3주간 판매된다. 판매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0개 은행과 미래에셋·한국투자·KB·신한투자·삼성증권 등 15개 증권사를 통해 진행된다. 선착순 방식으로 모집되며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상품은 국민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한 뒤 여러 자펀드에 나눠 투

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 재정이 일부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형태를 적용해 투자 안정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각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정부 재정이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실제 투자 운용을 맡을 자펀드 운용사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에스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총 10개사가 선정됐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 일부 운용사는 코스닥벤처펀드 형태로 참여해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까지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방산, 로봇, 콘텐츠 등 12개 첨단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금융사와 일반 투자자 자금을 더해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확대한

다는 계획이다. 올해만 3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이 추진된다.

특히자금의 상당부분을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신규 자금 형태로 공급하도록 설계한 점도 눈에 띈다. 단순히 기존 상장주식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유망 기술기업의 성장 자금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코스피 투자 비중은 제한적으로 가져가되, 스케일업 단계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투자 집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안 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으로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삼성전자 평택 공장 프로젝트 등에 자금이 투입됐다. 최근에는 네이버 AI 데이터센터 확장 자금 지원과 AI 반도체 설계 기업 리베리온 투자까지 진행하며 첨단산업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허정윤 기자



KB증권이 지난 1일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을 통해 선보인 세 번째 기업동행정원인 '깨비정원 in 서울숲'의 모습. /KB증권

## KB증권, 서울숲에 '깨비정원' 조성

시민들에게 치유의 경험 제공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KB증권이 도심 한복판에 '정원'을 만들었다. 서울숲에 세 번째 '깨비정원'을 조성하며 도시 녹지 공간을 매개로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지난 1일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을 통해 세 번째 기업동행정원인 '깨비정원 in 서울숲'을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친환경 프로젝트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았다. 이번 박람회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5개월간 서울숲 일대에서 열리며, 도심 속 자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 증시 활황에 증권사 실적 '고공행진'

NH투자 1분기 매출 8조8976억  
키움증권 영업이익 90.9% 증가

코스피가 7000시대를 연 가운데 증권사의 영업이익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대 증권사 중 이날까지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곳은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 등 2곳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23일 올해 1분기 8조897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8.8%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6367억원, 당기순이익은 4757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1분기 당기순이익은 사상 처음 연간 1조원을 넘은 지난해(1조315억원)의 46%로, 한 분기 만에 지난해 순이익의 약 절반을 벌어들였다.

키움증권은 같은 달 30일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6212억원, 당기순이익이 477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9% 증가한 수준으로, 시장 전

망치(5583억원)를 11.3% 상회했다. 순이익은 102.6% 늘었다.

매출은 9조3960억원으로 156.7% 증가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한국투자증권) 등도 장밋빛 실적이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조357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2% 급증한 수치다. 한국금융지주는 60% 가까이 증가한 8220억원, 삼성증권은 50%이상 늘어난 5116억원으로 각각 전망됐다. /신하은 기자

## 신한운용 'AI반도체ETF', 순자산 1조 돌파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5414억

는 상장 한 달 만에 순자산 5000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5000억원 돌파 4일 만에 순자산 1조원을 달성했다.

신한자산운용은 'SOL AI반도체TOP2플러스ETF'의 순자산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17일 상장 이후 약 50일 만에 단기간에 국내 반도체 대표주 투자 수요를 빠르게 흡수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0억원 규모로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특히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두드러졌다. SOL AI반도체TOP2플러스의 상장 이후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금액은 5414억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국내 반도체 ETF 중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 /신하은 기자

# 산업부, 전자기기·화장품·비철금속 등 수출 주력품목 확대

수출입 통계품목 분류 전면 개정 생활용품 등 20대 주력품목 체계 김정관 장관 “수출 실적 뒷받침”

정부가 우리 산업과 수출 구조 변화를 반영해 수출입 통계 품목 분류 체계(MTI)를 6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른 분석 결과, 올해 우리 수출은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글로벌 순위(2월 누계 기준)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랐다.

산업통상부는 6일, 수출 다변화 동향을 반영해 기존 15대 주력 품목에 전기기기, 비철금속, 농수산물, 화장품, 생활용품 등 5개 품목을 추가한 20대 주력 품목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출 다변화 동향을 반영해 한류 열풍으로 급성장한 소비재와 공급망 핵심인 중간재를 주력 통계에 포함했고, 이들 통계를 지속 제공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동향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대 품목의 수출 비중은 2025년 기준 전체의 86.3%로 기존 15대 품목(77.2%)보다 높아져 보다 상세한 수출 동향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주



산업통상부는 1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8% 증가한 2199억 달러, 수입은 10.9% 증가한 1694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 50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요 품목 세부품목을 조정했다. 품목별로 반도체(메모리·시스템 분리는 기존 ‘집적회로’ 코드 내에 혼재되어 있던 시스템 반도체를 별도 코드로 신설했다. 메모리 반도체 역시 가격 변동성이 큰 DRAM과 낸드플래시(NAND) 등으로 세분화해 제품별 업황을 정부 공식 통계로 즉각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계중 구조 재편)는 차종과 구동방식이 혼용되던 체계를 바로잡았다. 상위분류는 트랙터·승합차·화물차·승용차 등 차종별로 나누고, 그 하위에서 내

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 등 파워트레인을 구분한다. 특히 신차와 중고차 수출을 분리해 최근 급성장 중인 중고차 시장 동향도 파악 가능하다.

배터리 및 소재(가치사슬 통합)의 경우 기존 ‘기타 축전지’에 묶여 있던 리튬이온배터리를 독자 코드로 신설했다. 또 여러 품목에 흩어져 있던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를 ‘축전지 소재’ 코드로 통합해 배터리 산업 전체의 가치사슬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바이오헬스는 독자적인 MTI 코드를

부여해 의약품(원제/원료)과 의료기기로 이원화했다. 일반기계는 현장 수요에 맞춰 제조장비·산업기계·에너지기계·기계부품으로 재편됐고, 섬유는 가방·신발 등을 포함하는 ‘섬유패션제품’으로 통합해 산업 대표성을 확보했다.

산업부가 개정된 MTI 코드 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은 219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는 AI 서버 투자 확대에 힘입어 139% 급증한 785억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자동차 수출은 화물차(+63.9%)는 크게 증가했으나, 승용차(-2.2%), 승합차(-31.7%) 등이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0.3% 감소한 172억 달러를 기록했다.

소비재 품목 수출은 한류 확산 영향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K-뷰티 선호 증가로 화장품(31.3억 달러, +21.5%) 수출이 증가했으며, 농수산물 수출은 K-푸드 인식 제고로 면류(5억 달러, +24%) 등 품목이 크게 확대되면서 7.4% 증가한 31.1억 달러를 기록했다. 생활용품(21.0억 달러, +3.9%) 수출은 K-콘텐츠 인기 확대로 문구·완구(7.8억 달러, +16.6%) 등

이 호조세다.

특히 올해 2월까지 글로벌 수출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2026년 1~2월 누계 기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액은 1332억 달러를 기록하며 6위 일본(1203억 달러)을 제쳤다. 한국은 상위 7개국 중 가장 높은 31.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4위 네덜란드(1598억 달러)를 추격 중이다. 분기별 수출 역시 일본을 여유있게 앞서는 5위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한편, 반도체 외 수출도 두 자릿수의 견조한 증가세로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2월까지 글로벌 수출 순위도 5위로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과 미국 관세 불확실성 등 향후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무역금융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 한전, 변전소 유후부지 ‘재생에너지 거점’ 조성

2030년까지 95MW 태양광 설비 구축 김동철 사장 “국가 탄소중립 실현 기여”

한국전력이 전국의 변전소 유후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기지 구축에 나선다. 단순히 전력을 공급하던 변전소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전은 공공기관 K-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전국 500개 변전소에 총 9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른바 ‘송변전 유후부지 에너지화’ 프로젝트다. 한전은 변전소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 조경부



지, 자투리땅 등 태양광 설비 설치 가능한 부지 500여 곳을 발굴했다.

이는 기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글로벌 에너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혁신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태양광 설비 도입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 이상의 효과를 노린다. 특히 산지에 위치한 변전소의 경우, 기존 수목 조경 부지를 태양광 설비로 전환하면 산불 발생 시 불길이 번지는 경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재 벽’ 역할을 할 수 있다.

한전은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며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한전은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나섰다. 올해 1MW 규모의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검증한 뒤, 2030년까지 95MW 규모를 단계적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사진)은 “변전소 유후부지를 활용한 95MW 태양광 구축은 에너지 대전환의 상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K-RE100 대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환경산업기술원, 민간기업 탄소중립 지원

LG에너지솔루션 등 5개 기업 업무협약

탄소중립을 향한 유럽연합(EU) 국가 등 주요국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도 이산화탄소 감축 활동과 관련한 ‘투명 공시’가 추진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탄소중립·친환경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활동 내역을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게 공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달 30일 녹색 분류체계 기반 정보공개 참여 5개 기업과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S전선, 삼성SDS, 우리은행, 효성중공업이다. 정책 기조를 다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지원에 합류한다.

이들 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정보공개 장구를 통해 녹색 경제활동과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시장과 투자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환경산업기술원 측 설명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협약 참여기업들이 녹색분류체계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공개를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업 5개사는 경영 활동 중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활동을 식별하게 된다. 이를 녹색 매출액, 녹색 자본적지출(CapEx) 등 성과지표로 산출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한다. 이어 기후부 및 환경산업기술원과의 협력하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공개 사례를 도출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마사회, 체험형 인턴 모집

한국마사회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의 직무능력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마사회는 ‘2026년 체험형 청년인턴 60명 모집’ 공고를 냈다. 한 관계자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밝혔다.

채용은 ▲사무·기술보조 ▲말산업 전문 ▲AI·빅데이터 전문(3명) ▲불법단속 등 4개 분야로 이뤄지며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학력, 성별, 전공 제한은 없다.

합격자들은 과천을 비롯해 부산·경남, 제주 등 전국 사업장 또는 재택근무를 통해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 산업인력공단, 근로자 디지털 역량 강화

AI 기초훈련 등 성장 기회 제공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은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선도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이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공간의 제약을 허문 ‘AI 기초훈련’과 ‘AI 융합훈련’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AI 기초훈련’은 AI 활용 경험이 없는 비전문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 입문 과정이다.

이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문턱 없는 시작’에 있다.

기초를 다진 근로자들이 현업에서 즉시 AI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AI 융합훈련’도 운영된다. 이는 산업별 특성과 직무 지식을 AI 기술과 결합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급·응용 단계의 심화 과정이다.

박상철 이사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중소기업 핵심인재 양성에 인공지능훈련이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단은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 선도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산업 현장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부산항만공사, ‘스마트 항만’ 사전작업 분주

항만하역장비에 AI기술 접목 모색

부산항만공사(BPA)가 스마트 항만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에 한창이다. 민간기업 등과 손잡고 항만하역장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6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전남 영암에서 ‘AI 기반 항만하역장비 고도화를 위한 기술협의회’가 열렸다.

지난달 HD현대삼호보타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국내 항만전문기술 보유기업 7개사의 관계자가 모였다. 부산항만공사과 HD현대삼호, 항만장비업체, 인공

지능기술 기업 등이다.

참석자들은 상호 핵심기술을 공유하는 동시에, 향후 이를 항만 크레인 운영 자동화, 유지보수 지능화 수준 제고 등 정부의 실물인공지능(피지컬 AI) 공동사업 발굴과 연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사는 이번 협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 연구과제인 ‘K-스마트 항만 구현을 위한 피지컬 AI 항만물류’ 공동사업 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협의를 통해 도출된 기술을 바탕으로 실증사업과 정부과제까지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G-ROUND ART FAIR 2026

9.17

9.20

성도컨벤시아  
101타워

Beyond Art

예술을 넘어서... 후미리즘이 되다

글로벌 그라운드 아트페어 2026

| 주최 세계일보 | 주관 GAF조직위원회 | 후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문의 : 02-6743-3303

# “현장 중심 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 인터뷰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은 취임 이후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과 조직 혁신을 통해 기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냈다.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조직개편과 인사 혁신을 병행해 정책 실행력을 크게 끌어올렸다. 그 결과 기관평가 상위권 진입과 대통령 표창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대외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개선한 ‘통큰 세일’ 사업은 소비자 혜택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이끌어낸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31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정책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며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구현했다. 내부적으로는 ‘팀장 책임제’ 도입과 청렴경영 체계 구축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강화했다.

메트로신문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김민철 원장이 이끌어온 변화의 궤적과 그 성과,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향후 전략을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다음은 김민철 원장과의 일문일답.

**Q. 취임 후 ‘버킷 리스트’를 통해 조직 활성화를 이끌었다고 들었습니다. 주요 성과는 무엇입니까?**

취임 이후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센터 기능을 통합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전략사업팀, 홍보팀, 교육정책팀을 신설해 정책 추진력과 대외 소통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교육정책팀을 중심으로 상권 매니저뿐 아니라 내부 임직원의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40여 개에 달하던 사업을 핵심 중심으로 축소·통합해 업무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집중도와 효율성은 높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취임식을 대신해 정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데 주력했고, 이후에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생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며 체감도 높은 사업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업인 ‘통큰 세일’ 역시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한페이백 방식으로 개선해 소비자 편의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동시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Q. 인사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팀장 책임제’는 조직 운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팀장 책임제’ 도입 이후 팀 단위 성과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팀장이 단순 전달자가 아닌 조직 운영의 주체로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관리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 전략적 사고가 함께 향상되고 있습니다.

**‘통큰 세일’ 페이백 방식 사업 개선 ‘찾아가는 민생현장 간담회’ 운영 대통령 표창·청렴도 개선 등 성과**

구성원들도 개인 업무 중심이 아니라 팀 전체 성과를 위해 협력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며 팀워크가 강화되고, 이는 전반적인 업무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각종 대외 표창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았고, 정원도 83명으로 확대되는 등 기관 규모와 역량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행정 체크리스트 도입 등으로 업무 책임성과 관리 체계 역시 한층 강화했습니다.

**Q. 과거 경기도 산하 기관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던 경상원이 최근 대통령상 수상 등 성과를 거두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사업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 정책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공공기관 우

수 정책 사례 발표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 이어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기도 대표 정책 페스타’에서 통큰 세일이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되며 정책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도민 소비 혜택을 동시에 실현하는 페이백 방식의 정책입니다. 31개 시·군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체감도를 높인 것이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청렴도 역시 크게 개선돼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설립 이래 최초로 2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익명 신고 시스템 ‘청렴소리함’,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투명성과 인권경영을 강화했고, 인권경영 시스템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또한 ‘경기가족친화 알하기 좋은 기업’ 인증과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도 연이어 획득하며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다졌습니다.

**Q. 2026년 하반기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해외 판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경기도 소상공인은 약 43만 명 규모로 전국 최대 수준이지만, 자금력과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바이어 상담이 활발히 진행됐고,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방문 등으로 글로벌 시장의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는 해외 바이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영문 홍보물 제작, 통역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기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10개 소상공인을 선정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ASD WEEK’ 참가를 지원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Q.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통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사용처 제한과 이용 불편 등으로 본래 취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판매율은 발행 목표 대비 69.3% 수준에 그치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으로 제한돼 일반 골목상점에서는 활용이 어려워,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유통이나 위·변조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화폐는 지역 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있으며, 할인과 인센티브 혜택이 더해져 소비자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소상공인 해외 판로개척 본격 추진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 제시 “전통시장·골목상권 적극 지원할 것”**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두 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통합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정책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Q. 마지막으로 경기도 소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상권을 지켜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과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며,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metro



경상원은 지난해 경기도 대표 정책 페스타에서 ‘통큰 세일’ 사업 성과로 경기도지사 최우수 표창을 수상했다.



김민철 경상원장이 지난 3월 ‘통큰 세일’ 북부 상권 현장 점검에 나섰다. /경상원

# “비닐·용기값 부담 커졌다”... 식품업계, 탈플라스틱 가속

**CJ제일제당 PHA 소재 적용 확대  
동원F&B 용기 경량화로 절감  
롯데칠성 신재 플라스틱 감축  
빙그레 PET 순환 모델 구축  
현대백 폐비닐 자체 재활용**

나프타와 폴리에틸렌 등 주요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구조적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식품업계의 제조원가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에 주요 기업들은 단기적인 물량 확보를 넘어 생분해 소재 도입과 용기 경량화 등 포장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며 ‘탈플라스틱’을 통한 비용 절감과 공급망 리스크 해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나프타 가격은 올해 초 톤당 80만원대에서 최근 160만원 안팎으로 2배가량 폭등했다. 식품 포장재와 부자재 가격도 평균 20~25% 상승하며 기업들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

농심, 삼양식품, 롯데웰푸드 등 주요 기업들은 재고 확보와 발주 관리로 당장



지속 가능한 포장재 재활용의 변환.

/췏GPT가 생성한 이미지

의 생산 차질은 막아냈으나, 갈수록 높아지는 원가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포장재 구조 재편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독자적인 소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다. CJ제일제당은 미생물 기반 생

분해 소재인 PHA(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를 활용해 기존 석유계 비닐을 대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종량제 봉투보다 신축성이 1.8배 뛰어난 PHA 종량제 봉투 35만장을 제작해 서울 중구청에 기부하며 상용화 범위를 넓혔다. PHA는 식물 유

래 성분을 활용해 유가변동의 영향을 덜 받을 뿐만 아니라, 토양과 해양에서 분해되는 친환경성까지 갖춰 화장품 용기, 즉석배출 포장재 등으로 적용 분야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용기 디자인 혁신을 통한 플라스틱 감축 노력도 구체화되고 있다. 동원F&B는 최근 2년간의 연구 끝에 12각 돌출 구조와 다이아몬드 서포팅을 적용한 친환경 용기를 개발했다. 이를 참치액과 식용유 제품에 우선 도입해 고질적인 누유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연간 14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동원시스템즈와의 협업을 통해 포장재 신소재 개발을 강화하는 등 그룹 차원의 대응력도 높이는 추세다.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비용 절감 전략도 가속화되고 있다. 롯데칠성 음료는 2030년까지 신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이고 재생 원료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주요 음료 브랜드에 재생 플라스틱 100%를 적용해 연간 4200톤의 플라스틱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빙그레 역시 국내 최초

로 용기와 라벨 모두에 재생 PET를 적용한 기술을 선보이며 순환 경제 모델을 구축했다.

유통가에서는 외부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자체 순환 모델’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현대백화점은 점포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해 다시 비닐봉지로 만드는 ‘비닐 투 비닐’ 시스템을 통해 20만장 규모의 재생 비닐을 확보, 외부 수급 불안 속에서도 안정적인 조달 능력을 증명했다. 롯데마트는 무류P&P와 협력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90% 이상 줄인 펄프 트레이를 즉석조리 코너 등에 도입하며 포장 방식 자체를 혁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 원료 발 원가 위기가 상시화되면서 친환경 포장재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구조적 필연이 됐다”며 “소재 개발 능력과 공급망 재편 속도가 향후 식품 기업의 수익성을 가르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 콘솔 체험으로 게임족 공략 롯데百, PS 전문매장 열었다

**잠실 롯데월드몰에 체험형 매장 조성  
PS5 프로·포탈 등 최신 기기 시연  
게임용 수료 늘자 2535 남성 공략**

롯데백화점은 지난 4일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플레이스테이션 전문 스토어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플레이스테이션은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브랜드로, 대표 기기인 플레이스테이션 5는 누적 판매량 8400만대를 넘어섰다. 독점 게임 타이틀을 기반으로 한 이용자 층이 두터운 점이 특징이다.

롯데백화점은 게임과 취미 중심 소비가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2535 남성 고객 유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게임 및 주변기기 상품군 매출은 50% 이상 증가했으며, 해당 카테고리에서 2535 남성 고객 비중은 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 ‘플레이스테이션 전문스토어’ 오픈일(5/4)에 고객들이 오픈런 행렬을 이루고 있다.

/롯데백화점

40%로 나타났다.

매장은 콘솔과 주변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 플레이스테이션5 프로와 플레이스테이션 포탈 리모트 플레이어를 활용한 게임 체험존과 PC용 컨트롤러 체험 공간 등이 마련됐다.

/김서현 기자

## 현대百, 백화점 호조 속 지누스 부진

**백화점 1분기 매출 역대 최대  
명품·패션 호조에 外인 고객 급증  
지누스 적자 전환에 전체 실적 감소**

현대백화점이 명품과 패션 부문의 판매 호조 및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백화점 부문에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매트리스자회사 지누스의 실적 부진과 면세점의 외형 축소 영향으로 그룹 전체의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6일 현대백화점 공시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의 1분기 연결 기준 전체 매출액은 95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988억 원으로 12.2% 줄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26.5% 축소된 649억 원을 기록했다.

이번 현대백화점 분기 실적에서는 백화점 부문의 뚜렷한 성장세와 여타 부문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올해 1분기 백화점 부문의 순매출은 63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하며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갈

아치웠다. 특히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7%나 늘어난 135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부터 시작된 영업이익 증가폭 확대 흐름이 올 1분기에도 더욱 가파르게 이어진 결과다.

현대백화점 측은 이러한 호실적의 배경으로 고마진 상품군인 겨울 아우터 등 패션 매출이 지난해 4분기부터 꾸준히 증가한 점을 꼽았다. 기존의 해외 명품 중심 소비가 국내 패션 브랜드 등 전 상품군으로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고객의 유입 또한 실적 상승을 견인한 핵심 요인이었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더현대 서울’의 경우 올해 1분기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면세점 부문은 내실 경영에 집중하며 3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현대면세점의 1분기 영업이익은 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억 원 개선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김서현 기자

## CJ웰케어 ‘멜라메이트’ 체험형 팝업으로 MZ 공략 잠만보 협업 기획팩 출시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CJ웰케어가 웰니스 브랜드 ‘멜라메이트(Melamat e)’와 인기 포켓몬 캐릭터 ‘잠만보’가 협업한 ‘잠만보 한정 기획팩’을 출시하고, 올리브영 관악 타운에 체험형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휴식과 일상 속 안정을 중시하는 웰니스 루틴이 2030 세대의 주요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로 부상하는 가운데, 멜라메이트는 대학가 핵심 상권을 거점으로 젊은 소비자와의 접점을 본격적으로 넓힌다는 전략이다.

/신원선 기자



멜라메이트 팝업스토어 전경.

/CJ웰케어

## 설레임, 손시림 줄인 패키지로 여름 공략

**손에 닿는 직접적인 냉기 차단**

파우치형 아이스크림의 대표 주자 ‘설레임’이 미세발포 기술을 적용한 패키지로 손시림 현상을 개선하고 다가오는 빙과 성수기 공략에 나선다.

롯데웰푸드는 출시 24주년을 맞은 대표 아이스크림 브랜드 ‘설레임’에 신기술을 적용한 패키지를 도입하고, 신제품 2종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 리뉴얼은 설레임을 장시간 쥐고 있을 때 발생하는 손시림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 패키지 내 포와 외포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고, 그

안에 질소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손에 닿는 직접적인 냉기를 차단했다. 해당 패키지는 국내 공인 시험·검사 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단열 성능평가에서 기존 패키지 대비 실제로 손시림이 48% 완화된 것을 확인받았다.

이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더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품 입구도 키웠다. 웨이크 질감의 특성상 공풍 연 상태인 개봉 직후에는 취식이 쉽지 않다는 일부 소비자 의견을 반영했다. 신규 패키지는 신제품을 시작으로 기존 라인업에도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GS25, 와인·위스키 최대 50% 할인

**카드 할인·네이버페이 혜택 제공**

GS25가 5월 한 달간 와인과 위스키 대규모 프로모션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27종 대상으로 5월 ‘이달의 와인’ 행사가 열린다. 라나크레인발보로 소비농블랑, 거브너화이트, 사또팔보 2023, 몰리두커인첸티드페스 등 1만원 대 데일리 와인부터 1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와인까지 폭넓은 가격대의 상품을 구성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해당

상품들은 삼성카드 결제 시 20% 현장 할인이 적용된다.

위스키 역시 5월 ‘이달의 위스키’ 행사를 통해 총 20종을 선보이며 네이버페이 결제 시 동일하게 20% 페이백 혜택을 제공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에서는 5월 한 달간 ‘우리동네 장터행사’가 열린다. GS25 픽업 전용 행사로 와인과 위스키 약 300개 상품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김서현 기자

## 하이트진로

### 진로, 맛·패키지 새단장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 한층 강화**

하이트진로는 MZ세대 취향저격 브랜드로 소주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진로의 전면 리뉴얼을 단행, ‘올뉴진로’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브랜드 타겟층을 명확히 하고, ‘진로’의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한층 강화하고자 올해 ‘올뉴진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먼저 변화하는 소비자 입맛을 반영해 지난 2월 주질을 리뉴얼하며 초갈끔한 맛을 향상시켰다.

/신원선 기자

# 신규 바이오시밀러 성과... 매출 1조1450억 기록

## 셀트리온 1분기 실적

전년비 매출 36%, 영업이익 115.5% ↑  
고수익 신규 제품군 매출 67% 급증  
유럽·美 성장세... 수익성 개선도  
올해 목표 실적 초과 달성 기대감

셀트리온이 지난 1분기 신규 출시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매출 성장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새로 썼다.

셀트리온은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1450억원, 영업이익 3219억원의 잠정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36%, 영업이익은 115.5% 증가하며 역대 1분기 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 역시 약 28.1%로 대폭 개선됐다. 회사는 1분기 중 진행된 미국 생산시설 정기 보수에 따른 일시적 영향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영업이익률은 30%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고수익 신규 제품군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7% 대폭 증가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이들 신규 제품군은 유럽 주요국 입찰 수주와 미국 환급 커버리지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며 올 1분기에만 5812억원의 합산 매출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신규 제품 매출 비중은



셀트리온 '오리클로'.

처음으로 전체 제품 매출의 60%까지 확대됐다.

실제 작년 9월 유럽에 출시된 '오리클로'는 4개월여 만에 덴마크 98%, 스페인 80%, 네덜란드 70% 등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미국 시장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 '집펜트라'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월간 처방량을 기록 중이다. '스테키마' 역시 올해 3월 기준 10%가 넘는 점유율(IQVIA)을 기록하는 등 고수익 신규 제품군을 중심으로 대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등재를 통한 환급 커버리지 확보가 처방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수익성도 개선됐다. 합병 이후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 영향이 완전히 해소됐으며 ▲고원가 재고 소진 완료 ▲개발비



셀트리온 집펜트라.

상각 종료 ▲생산 수율 개선(Titer Improvement) 등이 진행되며 영업이익률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1분기 실적 개선으로 올해 목표인 연매출 5조3000억원, 영업이익 1조8000억원을 뛰어넘는 초과 실적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통상 ▲유럽 주요국 입찰이 2~3분기에 집중되고 ▲입찰 결과에 따른 초도 물량 공급이 하반기에 이뤄지며 ▲의료 기관의 재고 확보 수요가 연말에 증가하는 특성상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확대되는 구조를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출시된 고수익 신규 제품들이 특허 합에 따라 판매 기간을 넓힐 예정인 점도 하반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앵토즈마 피하주사(SC) 제형, 오리클로

등이 올해 미국 시장에 새로 출시되면서 매출 성장을 이끌 추가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현재 판매 중인 11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2030년 18개로, 2038년에는 총 41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약 분야에서도 CT-P70을 포함해 현재 임상 단계에 접어든 4종의 후보물질을 비롯해 이중항체, 다중항체, 비만치료제 등 경쟁력 있는 플랫폼 개발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총 20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사업과 더불어 신약 개발을 병행하는 구조로, 이번 실적에는 약 1000억원 수준의 경상 연구개발비가 반영돼 있는데, 이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견조한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올해 들어 역대 최대 월간 처방량을 갱신 중인 집펜트라를 비롯해 신규 제품들의 처방 확대와 입찰 수주 성과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실적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최근 매입한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metro

##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수면 중 놀림·주름 여운팩으로 집중관리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에서 '여운팩' 오버나이트 마스크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밤 사이 피부를 집중 관리해 피부 밀도와 생기를 가꿔준다. 특히 수면 중 발생하는 반복적인 놀림 자극, 수면 주름 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갖췄다.

설화수는 밤 사이 수면 자세에 따른 흔적이 피부에 장기적인 손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나이트 리치치 콤플렉스'를 적용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에너지 활성을 돕도록 했다.

주름 개선 성분인 아데노신, 설화수 독자 성분 자음단 등은 피부 기초 체력을 높인다. 스쿠알란, 판테놀 등 보습 성분과 비타민C 유도체, 비타민E 등 항산화 성분도 더해졌다.

이와 함께 부드러운 크림 제형을 처방했다. 밤 사이 끈적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베개에 묻어나지 않아 편리하다.

아울러 해당 제품 4주 사용 후 진행된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아침에 피부가 생기 있고 피부 컨디션이 회복된 듯한 느낌이다'라는 항목에서 100% 만족도를 기록했다.

수면 중 반복적으로 생기는 놀림 자극과 잔주름 완화에 대해서도 96%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정하 기자

# HK이노엔 '케이캡', 美 임상 3상서 우월성 입증

## '美소화기학회'서 전체결과 발표 기존 PPI 계열 약물 대비 우수

제30호 국산 신약 '케이캡'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기준 표준 치료제를 넘어서는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며 글로벌 블록버스터 등극에 속도를 낸다. 미국 임상 3상으로 약물 경쟁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앞서 진출한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수익을 창출해 'K신약'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

6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5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린 '2026 미국소화기학회(DDW)'에서 HK이노엔은 케이캡 미국 임상 3상(TRIUmpH 프로그램) 전체 결과를 발표했다



위식도역류질환 국산 신약 '케이캡' 제품군. /HK이노엔

다. 이번 발표는 케이캡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표준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기존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 계열 약물 대비 우월성을 입증한 최초 사례다.

케이캡은 칼륨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계열 차세대 약물이다. 복용 30분 내에 약효가 빠르게 발현되고

지속성이 우수하다. 식사시간에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고 6개월 장기 복용 시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

이번 미국 임상 3상은 미란성 식도염 환자 1250명에서 이뤄졌다. 케이캡 성분 '데고프라잔' 100mg 또는 PPI 계열 약물 '단소프라졸' 30mg을 투여해 두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한 것이다. 그 결

과, 투약 8주 시점 완치율에서 데고프라잔은 84.6%를 기록, 단소프라졸 78.0% 대비 비열등성 및 우월성을 확보했다.

중증 미란성 식도염 환자군에서 나타난 결과는 더욱 차별적이다. 중증 환자의 2주 시점 치유율은 데고프라잔이 74.1%로 단소프라졸 54.5%보다 20%p 가까이 높았다. 8주 시점 치유율은 데고프라잔 83.2%, 단소프라졸 68.0%로 차이를 보였다.

김현수 대한소화기학회 이사장(연세대 원주대 소화기내과 교수)는 "케이캡이 P-CAB 약물로서 새로운 근거를 바탕으로 향후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현장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정하 기자 mlee236@

## 동국제약 '센텔리안24' 美 얼타뷰티 진출 1400개 매장 입점



동국제약은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가 미국 전역의 얼타뷰티 1400개 매장에 입점했다고 6일 밝혔다.

얼타뷰티는 미국 최대 뷰티 전문 채널로, 센텔리안24는 5월 '마데카 크림 타임 리버스' (사진)를 시작으로 오는 8월에는 PDRN 제품, 마데카 말차 제품 등 브랜드 주력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마데카 크림 타임 리버스는 동국제약이 50년 이상 축적한 피부 과학 기술을 집약한 제품이다. 독자 구축한 '센텔리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 성분'에 5가지 특허, 병풍 연구 등을 더해 종합적인 항산화 기능을 완성했다. 피부 주름, 탄력, 톤 등 10가지 복합적인 고민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동국제약은 차세대 소재를 활용한 PDRN 제품, 미국 시장 대표 품목인 자외선 차단제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 구축해 현지 소비자와 접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얼타 뷰티를 통해 미국 전역 소비자들에게 센텔리안24의 'K-더마코스메틱'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유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뢰받는 더마코스메틱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 "반얀트리서 '더후' 웰니스 경험하세요"

LG생활건강, 내달까지 프로그램 운영

LG생활건강은 5~6월 두 달간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궁중 피부 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더후'의 웰니스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더후 브랜드 대표 제품군인 '환유'를 객실, 스파, 다이닝 등 호텔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의 여유와 균형을 더하고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객실을 운영한다. 서울 남산 전경이 보이는 프

리미엄 풀 남산뷰 스위트 1개실을 환유 헤리티지 컨셉트룸으로 연출했다. 객실 소품에 동양적 미감을 담아 절제미와 우아함을 전달한다. 또 객실에 환유 7종 선물세트 등을 비치해 스킨 룹제비티(피부 장수) 루틴을 체험할 수 있다.

스파에서는 환유 제품을 활용한 관리 서비스를 구성했다. LG생활건강이 환유 연구를 집약해 완성한 '산삼' 성분을 응용해 젊음의 활력과 에너지를 고객에게 선사한다. 아울러 그라넵 다이닝 라운지에서는 조식과 함께 더후스페셜티를 제공한다. /이정하 기자

## BBQ, 관광객 늘자 흥대·명동 매출 '굉충'

전년비 34.4% ↑... 흥대 60% 급증

서울 핵심 관광 상권에서 대형 매장을 앞세운 전략이 외국인 소비와 맞물리며 BBQ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 흥대와 명동을 중심으로 한 매장 매출이 큰 폭으로 뛰면서, 'K-치킨'에 대한 해외 관광객들의 선호가 실제 상권 실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이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올해 1분기 흥대·명동 상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흥대 상권 매출이 60% 이상

급증했고, 명동 역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입 효과를 입증했다. 성수, 강남, 잠실 등 관광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BBQ는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유동이 많은 상권에 30~40평 이상의 대형 매장을 잇달아 선보이며 '홀 중심 매장' 전략을 강화해왔다. 배달 위주였던 치킨 소비를 매장 체험형 소비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치킨과 K-푸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포지셔닝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AMERICCINO

*Original Espresso Cream Coffee*



아메리치노 라떼  
Americcino Latte



아메리치노  
(오리지널 / 스위트)  
Americcino (Original / Sweet)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사상나눔재단과 나눔 실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사상나눔재단과 6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꽃동네재단을 방문해 1억2000만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인국 중소기업사상나눔재단 이사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미주한인상공회의소 황병구 회장 및 박기홍 고문 등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



롯데면세점, 장애인 운동선수 5명 직접 고용

롯데면세점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장애인 스포츠 선수 고용 계약 체결식을 열고 탁구 2명, 수영 2명, 배드민턴 1명 등 총 5명과 채용 계약을 맺었다. 지난 4일 임석원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부장(사진 우측 첫 번째)과 김관용 갤럭시시아에스엠 이사(좌측 첫 번째) 및 장애인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롯데면세점



애경산업, 어린이날 맞아 보육시설에 인형 전달

애경산업이 지난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어린이 보육시설 '꿈나무마을 파란꿈터'에 임직원이 직접 만든 애착인형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보육시설 아동들을 위한 애착인형은 총 62개가 제작됐다. /애경산업



이대서울병원, 서울고등법원과 '의료감정' 협약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 사회의실에서 '이대서울병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의료감정 업무협약'이 체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의료 소송이나 복잡한 신체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 전문적인 감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재판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다. 사진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왼쪽)과 주웅 이대서울병원장. /이대서울병원



기보, K-바이오기업 글로벌 진출 추가 지원

기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로슈, 바젤투자청과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왼쪽부터)정영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E zat Azem 한국로슈 대표, 박주선 기보 전무, 오봉근 바젤투자청 한국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 SKT, 지속가능경영 '롱런'... DJ 지수 17년째 편입

다우존스 ESG 경영 판단 지표 기후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영향

SK텔레콤은 2026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월드지수에 편입했다고 6일 밝혔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BI)는 글로벌 금융정보제공기관 S&P가 매년 발표하는 ESG 경영 판단 지표다.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개 기업의 산업별 상위 10%만 최고 등급을 받는다. SK텔레콤은 2008

년부터 17년 연속 해당 지수에 편입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 ▲공급망 ESG 프로그램 고도화 ▲기후 거버넌스 체계 정비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 등이 있다. SK텔레콤은 이사회 출석률 권고 기준인 75% 이상을 충족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 겸직을 제한하는 등의 결 기구의 혁신을 지속한다. 또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잠재적인 ESG 리스크를 심층 진단하고, 협력

사들을 대상으로 ESG 관련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전력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핵심인 '2025 넷 제로' 전략도 추진한다. 온실가스 간접 배출을 포함한 배출량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계약을 확대한다. 이밖에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협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개선 방안과 고위험 작업 안전수칙 등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SK텔레콤

## 박종길 "산재신청 문턱 낮추는게 핵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숏폼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이후 두 번째 추모주간을 운영하며 산재노동자 헌신을 기린다. 특히 국민 시각에서 제작된 숏폼 영상 공모전을 통해 '산재신청은 어렵다'는 편견 해소에도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6일 서울합동청사에서 '산재신청 바로알기' 숏폼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간 '산재신청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데 집중해 왔다. 이번 공모전 역시 국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가운데)이 6일 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민의 시각에서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을 포함한 6개 팀에 총 500만 원의 상금과 이사장 상장을 수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나만의 롯데리아 디자인 도전하세요"

유니클로 협업 공모전

츠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롯데GRS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UNIQLO)와 손잡고 '나만의 롯데리아' UTme!(유티미) 디자인 공모전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유니클로의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UTme!'에 고객이 직접 롯데리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재해석한 디자인을 더하는 참여형 콘텐

공모전의 주제는 'UNIQUE(유니크)'와 'FUN(펀)' 두 가지 섹션으로 나뉜다. 참여 방법은 롯데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트리에서 참가 신청서와 디자인 가이드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티셔츠나 토트백 시안을 제작하면 된다. 이후 개인 SNS에 완성된 디자인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고 구글폼을 통해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중진공, 직원 주도 AI 혁신 나선다

'사내 AX 챌린지' 10개 팀 선정 11월 중 4건 최종 우수 사례 포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임직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 업무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내 인공지능 전환(AI) 챌린지' 본선 진출 10개 팀을 선정했다. 현업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 개발에도 본격 돌입했다.

6일 중진공에 따르면 '사내 인공지능 전환(AI) 챌린지'는 임직원이 업무상 비효율 요인을 발굴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구현하거나 AI 코딩 도구를 활용해 업무를 개선하는 내부 혁신 경진 대회다. 전문 개발자가 아니라도 실무자가 직접 서비스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점이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법무부감사담당관 김혜정

◆생명존중희망재단 <제2대 이사장 △정윤순 전(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현대차, 글로벌 바다숲 프로젝트 가동

사회공헌 캠페인 '이름 없는 숲' 주목받지 못한 바다숲에 이름 부여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바다숲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새로운 사회공헌 캠페인 '이름 없는 숲'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0일 '바다식목일'에 앞서 공개된 이번 캠페인은 그간 육지숲과 달리 주목받지 못하던 바다숲에 지명을 부여하고, 이를 지도 서비스에 반영해 해양생태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바다숲은 연안 해역에서 해조류가 울창하게 번성해 형성된 생태 공간으로, 탄소 흡수 잠재력은 물론 수산자원 증진, 오염물질 정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중요한 해양생태계다. 실제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바다숲 사업 성과' 현황에 따르면 바다숲 1㎢ 당 연간 약 337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현대차와 해

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울산 해역에 조성한 바다숲 두 곳 가운데 동구 주전동 지역에 위치한 한 곳에 '울림(Ullim) 바다숲'이라는 지명을 부여하고, 해당 명칭을 국내 지도 플랫폼인 '카카오맵'에 올렸다.

이는 바다숲이 주요 지도 서비스에 이름과 위치로 표기된 첫 사례로, '울림'이라는 이름은 '울산의 새로운 숲(蔚林)'이라는 의미와 함께 환경 보전을 향해 바다숲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울림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현대차의 캠페인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도 확장되고 있다. 현대차는 바다숲 보전 선도 국가인 아르헨티나의 바다숲에 현지 해양 NGO 및 주민 단체와 협업해 'Auken Aiken(아우켄아이켄)'이라는 지명을 부여했으며, 호주에서도 현지 해양 전문가 및 지역 공동체와 바다숲 후보 명칭을 선정한 뒤 글로벌 투표를 통해 최종이름을 'Yanggaa(양가)'로 선정했다. /양성운 기자 ysw@



GC 오픈 하우스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GC녹십자그룹

## GC녹십자, 가족 초청 '오픈하우스' 성료

전체 계열사 5100여 명 참여

GC녹십자그룹이 지난 5일 경기 용인에 위치한 본사 목암타운, 충북 오창공장, 전남 화순공장 등에서 '오픈 하우스'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오픈 하우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그룹 내 전체 계열사 임직원 가족 5100여 명을 초청했다.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추억을 선사하고, 회사에 대해 알리는 등 임직원 사기를 높였다.

이행사는 지난 2001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GC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나의 영웅'을 주제로 진행되면서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의 멋진 모습'을 표현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가 어린이들은 하얀 도화지 위에 부모님의 모습을 그림이나 시로 표현하며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목암타운, 오창공장, 화순공장에서 각각 시상식을 가져 우수상, 아차상 등 다양한 상과 기념품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댄스 배틀, 세리머니 제창 등 임직원과 가족들이 활발하게 참여 가능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 또 행사장 곳곳에서 어린이 창작 뮤지컬, 명랑운동회 등도 운영해 즐거움을 더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고려대 학교추천전형 지원전략 가이드



지 상 범의  
입시 토크

2027학년도 대입은 2028학년도 대입 제도 전면 개편을 앞둔 마지막 '구(舊) 체제'의 정점이다. 특히 고려대학교의 학교추천전형은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들의 전유물로, 선발 방식의 단순함 속에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숨어 있다. 필자는 대학 측이 발표한 시행계획과 2027 고려대 입시설명회 통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필승 로드맵을 제시하려 한다.

고려대 지원의 첫 번째 관문은 전형 간 중복 지원 금지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고려대는 수시 모집에서 '학교추천전형'과 '학업우수전형' 간의 중복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내신 정량 점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면접 없이 합격하려는 '안정형(학추)'과, 높은 수능 최저 학력기준 충족 역량을 바탕으로 서류의 깊이를 보여주려는 '상향형(학우)'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통계적으로 내신 1.2 내외의 극최상위권은 학추를, 1.4에서 1.6 선이면서 수능에 강점이 있는 학생은 학업

우수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교별 최대 추천 인원이 12명으로 제한되므로, 교내 서열과 본인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대조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카드를 확정 짓는 것이 논리적 전략의 시작이다.

학교추천전형은 학생부 교과 90%와 서류 10%를 일괄 합산해 합격자를 가린다. 교과 점수는 전 교과를 반영하며 고려대만의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등급 간 감점 폭의 비대칭성이다. 1등급(100점)부터 3등급(92점)까지는 등급당 4점씩 감점되지만, 4등급은 86점으로 감점 폭이 6점으로 급격히 확대된다. 이는 비주요 과목에서 단 하나의 4등급이라도 발생할 경우, 주력 과목의 1등급으로도 만회하기 힘든 타격을 입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3학년 1학기까지 균형 잡힌 성적 관리가 학추 합격의 대전제다.

학교추천전형의 외형적 경쟁률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라는 필터를 거치며 비약적으로 낮아진다. 인문·자연계열은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 의과대학은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를 요구한다. 2027 고려대학교 입학처 입시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인문·자연계열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약 70% 수준이

며, 특히 의예과는 지원자의 41.1%만이 기준을 통과한다. 탐구 영역은 상위 1개 과목만 반영되므로 확실한 한 과목을 1등급으로 만드는 전략이 분석적 관점에서 효율적이다.

자연계열의 폭발적인 증원율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다. 과거 이과대학의 증원율은 모집 인원의 2배가 넘는 222.2%에 달했다. 이는 서울대나 타 대학 의대로 빠져나가는 인원 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인데, 예비 번호가 대폭 순연되는 현상을 역이용해 지원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

2027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서류평가에서 정성적으로 반영된다. 학추는 면접이 없는 일괄 전형이기에 10%의 서류 평가는 미세한 점수 차이를 뒤집거나 동점자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가르는 핵심 지표가 된다.

결론적으로 최상의 내신과 최적의 수능 최저를 결합하는 자가 승리한다. 2027 고려대 학추는 내신으로 문을 열고 수능으로 자리에 앉는 전형이다. 신설된 학부대학 등 전공자유선택제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치열한 내신 경쟁 속에서도 안암의 언덕에 오르는 합격의 영광을 거머쥌 수 있을 것이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 메모리 호황의 그늘



기지 수집  
차 현 정  
(산업부)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에 드리운 '칩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예상보다 짙어지고 있다. AI 시대 최대 수혜 분야로 꼽히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이 되레 스마트폰 사업 수익성을 갉아먹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갤럭시 S26 시리즈 흥행으로 판매량 자체는 선방했으나 급등한 메모리 가격이 수익성을 압박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동안 메모리칩 가격 강세 역시 지

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 속에서는 제품 가격 인상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경쟁사인 애플조차 아이폰 신제품 가격 동결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는 높아진 상태다.

삼성전자가 꺼내 든 카드는 제품 믹스 개선과 신규 폼팩터 확대다. 갤럭시 S26 울트라 등 고가 모델 판매 비중을 늘리고 폴더블 제품군 확대를 통해 평균판매단가(ASP)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기존 폴드·플립 시리즈를 넘어 '와이드 폴드' 형태의 신규 폼팩터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AI 스마트 클래스 등 새로운 디바이스 시장 진출 가능성도 언급된다.

특히 폴더블폰은 삼성 입장에서 단순한 혁신 제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데

다 원가 구조 측면에서도 일반 바형 스마트폰 대비 수익성 방어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다. 삼성이 사실상 독주하던 폴더블폰 시장에는 애플 진입 가능성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화웨이·모토로라·구글 등 중국 및 글로벌 업체들까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시장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결국 삼성전자가 넘어야 할 과제는 단순히 스마트폰 판매량 확대가 아니다. AI 시대 들어 급변한 원가 구조 속에서 하드웨어 중심 사업 모델만으로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결국 칩플레이션 시대에 삼성전자가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신제품이 아니라, 원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새로운 사업 구조일 것이다.

/hyeon@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7일 (음 3월 21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60년생 운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72년생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84년생 환경을 바꾸지 말고 자중함이 좋을 것입니다.



49년생 매우 잘 풀려 남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61년생 귀인이 저절로 찾아 옵니다. 73년생 개업 전업 모두 때가 좋으니 시작해도 좋습니다. 85년생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50년생 작은 근심을 버리세요. 62년생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74년생 사업을 유지하며 축소나 확장은 하지 마세요. 86년생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51년생 쉽게 이루어 지기는 어렵습니다. 63년생 심기를 안정시키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습니다. 75년생 사고의 후유증이 발병할 조짐이 있습니다. 87년생 동방향이 길합니다.



52년생 뜻대로 풀리지 않아 재물의 운이 잠시 막히게 됩니다. 64년생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76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88년생 조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겠습니다.



53년생 아끼지 말고 힘껏 도전하세요. 65년생 이상을 동반하는 가벼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77년생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89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주의하세요.



54년생 주변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세요. 66년생 말은 직책에 충실하여야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78년생 구설수에 시달리게 됩니다. 90년생 무리하지 말고 건강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55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는 운입니다. 67년생 노력하지만 보람없이 무너집니다. 79년생 불안하고 위태위태합니다. 91년생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56년생 동쪽에서 양심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68년생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세요. 80년생 곧 좋은 소식이 오게 됩니다. 92년생 원통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57년생 건전한 사고를 지니도록 하세요. 69년생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이직 생각을 다시하도록 하세요. 81년생 꾸준히 노력하면 사업이 차차 진전이 있습니다. 93년생 어려워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58년생 재물이 저절로 쌓일 것입니다. 70년생 여행은 떠나지 마세요. 82년생 그냥 남을 많이 도왔으니 그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94년생 귀화를 해하려는 자들의 음모가 진행중입니다.



59년생 갈수록 힘들어지지만 합니다. 71년생 모든 일이 복잡하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83년생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95년생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 김상회의四季 단순함의 미학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부자들일수록 단순하고 정결하게 인테리어를 하며 복잡함을 배제한다. 미니멀리즘이 현대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유도 단순함이 주는 안정감과 평안 때문이라. 설명하려 하면 할수록 본질에서 벗어나고 왜곡되는 진실과 진리를 우리는 그동안 하다하게 경험해 왔다. 무엇보다 진리는 복잡하거나 번다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단순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살림살이가 많을수록 사람은 도구의 노예가 되어가지 않던가. 그런 면에서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은 단순함의 진리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오컴은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이자 프란치스코회 수사였던 그는 "필요 없이 가설을 늘려서도 안 되며, 더 적은 수의 논리로 설명 가능한 것이 더 훌륭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을 폈고, 여기서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사교의 원칙이 유래된 것이다.

핵심은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두 가지 이상의 가설이 대립한다면, 가장 적은 수의 가정을 필요로 하는 가설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불필요한 가설들을 잘라내 버린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면도날을 쓴 것이라 한다. 경제성의 원리로서 경제 효율성을 따지는 단순함이다. 이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음양오행론과 심간십이지의 조합은 여덟 글자로서 인간의 삶과 인생을 무궁무진하게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수명 백세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긴 세월 동안의 인생계획을 핵심만 뽑아서 좌표로 삼을 수 있지 않은가? 단순한 것이 항상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길게 설명을 한다 해서 본질에 가까운 것은 아니다. 그 단순함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무궁무진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핵심을 안다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피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8		7			2	4
9		5		4	2		3
						5	
	7			6			9
	3		4		1		9
6			7			3	
	4						
5			6	8		9	2
7	9			6		4	8

6	2		8	4	1	9	5
		4		9		2	3
			2		5		
2	1					7	
5							2
	7						9
			7		4		
	5	2		1		4	
4	7	3	2	9		6	5

8	7	9	5	1	2	6	4
2	1	6	7	8	9	4	3
4	9	1	5	6	2	8	7
1	6	2	8	4	6	7	9
5	6	9	1	2	7	4	8
6	8	7	9	5	1	2	4
9	9	8	1	4	6	2	7
4	1	2	7	8	9	6	5
7	2	5	6	4	9	8	1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0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1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4년 전 맞대결 재연... 성신여대 '2위 총장' 논란 다시 고개

### 이성근·성효용 교수 재격돌 2022년 투표 1위 아닌 2위 선임 직선제에도 이사회 최종 결정 선임기준·절차공개 요구 커질 듯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선거가 4년 만의 '재격돌'로 치러지는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 불거진 '2위 총장'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당시 맞붙었던 두 후보가 다시 출마했고 최종 선임 구조 역시 4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제13대 총장 선거는 오는 12일 실시되며, 이번 선거에는 총장 연임에 도전하는 이성근 경영학과 교수와 성효용 경제학과 교수가 후보했다.

두 후보는 2022년 제12대 총장 선거에서 맞붙은 바 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구성원 투표 1순위 후보인 성 교수가 아닌 2순위 후보가 총장에 선임됐다. 선거보다 최종 선임 방식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성신여대는 2018년 학내 구성원 전체



성신여대 제13대 총장 선거 후보자 포스터가 교내에 게시된 모습. /성신여대 교육방송국 SEBS 유튜브 캡처

가 참여하는 총장직선제를 도입했지만, 선거 결과 상위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최종 1인을 선임하는 구조다. 구성원 투표 결과와 이사회 결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선제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실제 2022년 선거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갈등으로 이어졌다. 당시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없었고, 결선투표에서 성 교수가 50.2%를 얻어 49.8%를 얻

은 이 교수를 0.4%포인트(p) 차로 앞서며 최종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회는 사전 조건 발표와 면접 등을 거쳐 2위였던 이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총학생회와 일부 교수들은 구성원 총의를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일각에선 직선제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총학생회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 선출 과정에서 이사회 영향력이 과도하다”며 1위 득표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제도적 변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구성원 투표 결과와 이사회 선임권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려면, 최종 선임 과정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구성원 투표에서 1순위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면 이사회는 사실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오히려 1·2순위를 드러내지 않고 두 명의 후보만을 놓고 평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는지, 그 기준과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구성원도 문제 삼기 어렵다”며 “밀실 논의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절차 공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예외적 접근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이번은 과거 1위 후보와 현 총장이 다시 맞붙는 특수한 상황으로 이미 구성원 신뢰가 낮

다”며 “이번만큼은 1순위를 선임하는 방식 등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약 2순위를 선임할 경우에는 1순위 후보의 문제나 결격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성신학원 측은 현행 절차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신학원 관계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자를 면접하고 각자의 의결권에 따라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된다”며 “현재로서 별도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학내에서는 구성원 의견 반영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성신여대 한 재학생은 “직선제가 실시됐음에도 구성원 투표 결과가 최종 선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학생들이 많고, 학생 의견이 학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학생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고양시, 'IR데이'로 스타트업 성장 지원

### 창업오디션 참가기업 모집

고양시가 유망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2026 창업오디션, 고양 IR데이' 참가기업 모집에 나선다.

고양시는 오는 31일까지 '2026 고양 IR데이'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양시가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용사인 탭엔젤파트너스가 운영한다.

'고양 IR데이'는 우수한 기술력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투자 심사역과 직접 연결하고, 실질적인 투자 유치와 사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1·2차 IR데이

에 참여할 총 14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회차별로 7개 기업씩 선정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다. 고양시 소재 기업뿐 아니라 선정 후 1년 이내 고양시에 본사, 지점, 부설연구소, 공장 등을 설립하거나 이전할 계획이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IR데이 개최 전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최근 창업 생태계와 투자 동향을 공유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 기업 진단과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한 1대1 컨설팅, IR 스토리라인 구성 및 발표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진행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50년 묶인 미아7구역, 525세대 단지 탈바꿈

### 서울 마지막 자력재개발구역 신동기획 통해 합동재개발 전환 최고 23층 열린 주거단지 조성

서울시가 강북구 미아동 791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며,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자력재개발 정비구역이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한계는 보완해 주거환경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 최고 23층·525세대 규모의 열린 단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미아7구역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설 전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상지(2만 5215.4㎡)는 지난 50년간 행위제한으로 인해 자력재개발을 제외한 어떠한 개발 행위도 진행할 수 없었던 지역이다. 현재는 한지에 정지된 일부 주택은 주민 스스로 개량을 마쳤지만,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주민은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지역 간 주거환경 격차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 노후화가 심화하고 차량 통행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 유지되는 등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미아7구역은 1973년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된 이후 1975

년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지정, 1978년 사업계획 결정, 1995년 환지 방식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거친 지역이다. 자력재개발은 지자체가 상하수도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신축·개량하는 방식으로,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무허가 불량주택지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주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 계획 ▲삼양사거리역과 연계한 단지 계획 ▲생활 클러스터 계획 ▲가로 활성화 계획 등 5대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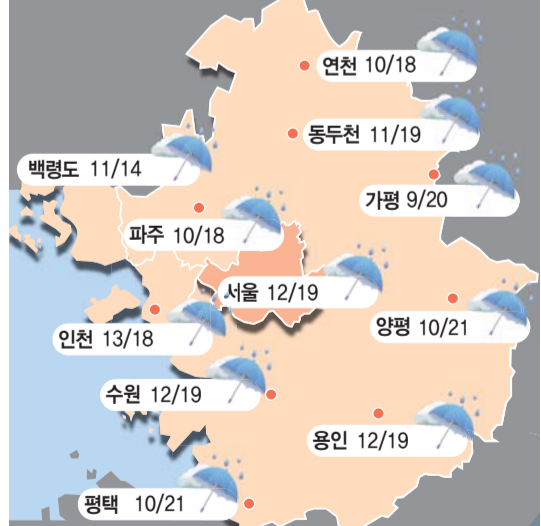
/이현진 기자

## 오늘의 날씨

5월 7일 (木)  
음력 : 3월 21일

수도권 날씨  
12 ~ 1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인천시, '공간지능 AI 도시' 구축 속도

### 산업부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선정

인천광역시 미래 국가 대형 R&D 사업에 참여하며, 세계적인 '공간지능 AI 도시'로 구축해 나갈 발판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인천시가 산업부의 3,026억 원 규모 '2026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3D 공간지능' 분야에 선정되어,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비롯해 국민대, 호서대, ㈜엘컴텍, ㈜아이지온 등과 협력한다.

시는 8년간 250억 원을 들여 로봇과 자

율주행차가 보내온 센서 정보로 도시의 3D 지도를 스스로 만들고 재난을 예측하는 AI 엔진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초지능형 미래 도시 구축,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과제에서 기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실제 도시 실험을 진행, 공간 생성 및 예측 AI 기술을 향한, 산업 단지, 구도심과 신도시 등 인천의 복잡한 실제 도시 환경에 적용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해, 조만간 수행기관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신속히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정은 인천시가 지난해 말



인천시청 전경.

수립한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정책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전략적 성과로, 국가 R&D 참여로 시의 역점 사업인 ima 플랫폼 고도화 '와 3D 도시 모델 구축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국비로 확보하는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었다. /인천=이숙영 기자

## 메트로 한줄뉴스



- ▲중국, 쿠바 제재 강화 나선 미국에 “협박과 강압 즉각 중단하라”
- ▲우크라이나,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인근 공격... 김정은 방위도 “빨간 불” /사진 뉴시스

- ▲일본 총리·방위상, 연휴 기간 인도태평양 순방... 중국 견제 강화
- ▲유럽연합, 트럼프 후 관세 인상 위협에 “약속은 약속... 합의 지켜라”

- ▲트럼프, 교황과 또 갈등... “이란 핵보유 옹호” vs “휴전 촉구, 평화 전파”
- ▲이란 대통령, “이라크는 형제... 미국의 압박·협상 동시 요구는 모순”



식품업계  
비닐·용기값 부담에  
탈플라스틱 가속  
나



Life

셀트리온  
신규 바이오시밀러  
매출 성장  
L2



# 참치명가 노하우, 캔 밖으로 한스푼이 바꾼 맛의 '신세계'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동원F&B '동원참치액'

동원F&B가 40년 '참치 명가'의 자부심과 기술력을 집대성한 '동원참치액'을 앞세워 국내 액상 조미료 시장의 판도를 재편하고 있다.

동원F&B의 '동원참치액'은 1982년 출시 이후 대한민국 참치캔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켜온 동원만의 제조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액상 조미료다. 제품의 핵심은 원재료의 품질과 가공 방식에 있다.

동원F&B는 남태평양을 비롯한 청정해역에서 직접 잡은 신선한 참치를 원료로 사용한다. 이를 동원만의 특화된 노하우로 자숙한 뒤, 무려 5시간 이상 정성껏 끓여낸 참치 엑기스를 베이스로 삼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동원참치액은 인위적인 조미료 맛이 아닌, 원재료 본연에서 우러나오는 깊고 진한 감칠맛을 선사한다. 특히 훈연참치추출물 함량을 80% 이상으로 높여 시중 제품들과 차별화된 풍미를 구현했다는 평이다.

동원F&B는 2024년 소비자들의 세분화된 취향과 요리 목적에 맞춰 제품군을 3종으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인 '동원참치액 진'은 참치액 본연의 가쓰오 풍미가 매우 진한 것이 특징이다. 국물 요리의 베이스는 물론, 깊은 맛이 필요한 조림, 찜, 볶음 요리 등 주방에서 가장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스테디셀러다.

'동원참치액 순'은 강한 훈연 향에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겨냥했다. 참치액 특유의 훈연 향은 줄이는 대신 멸치 숙성액을 첨가해 맛의 밸런스를 맞췄다. 이를 통해 보다 시원하고 깔끔한 뒷맛을 구현해 맑은 국이나 나물 무침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됐다.



'동원참치액' 3종.

/동원F&B

마지막으로 하이엔드 라인업인 '동원참치액 프리미엄'은 소재부터 차별화했다. 고급 참치 어종인 황다랑어 추출물을 함유해 더욱 고급스러운 감칠맛을 낸다. 훈연참치추출물 함량은 무려 85%에 달하며, 여기에 사양벌꿀, 감초, 다시마, 표고버섯, 마늘 등 업선된 부재료를 더했다. 이는 요리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풍미를 부드럽게 끌어올려 주는 역할을 한다.

국내 참치액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아이큐코리아(NIQ)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매점 매출 기준 참치액 시장 규모는 약 5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과 비교했을 때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커진 수치다. 집밥 문화의 확산과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를 추구하는 소비자 트렌드가 맞물린 결과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원참치액의 성장세는 단연 돋보인다. 2022년 첫선을 보인 이후,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전년 대비 5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레시피 전파와 공격적인 간접광고(PP) 등은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마케팅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2025년까지 누적 판매량 약 750만 병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업계 리딩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 초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참치액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그 정점을 찍었다.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해 올해로 24주년을 맞이한 이 어워드는 소비자가 직접 투표에 참여해 미래를 이끌어갈 브랜드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원참치액은 우수한 품질과 높은 고객 만족도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국민 조미료'임을 공인받았다.

동원F&B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참치액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자사 공장에 참치액 전용 자체 생산 설비를 대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원료 수급부터 제조, 포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했다. 이를 통해 품질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장 수요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동원F&B 관계자는 "동원참치액은 지난 40여년간 참치캔 시장 1위를 지켜온 동원의 기술적 자부심이 집약된 제품"이라며 "직접 잡은 참치 엑기스와 높은 추출물 함량이 주는 탁월한 품질이 소비자들의 신뢰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세밀하게 분석해 신제품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참치액 시장의 표준을 제시하는 대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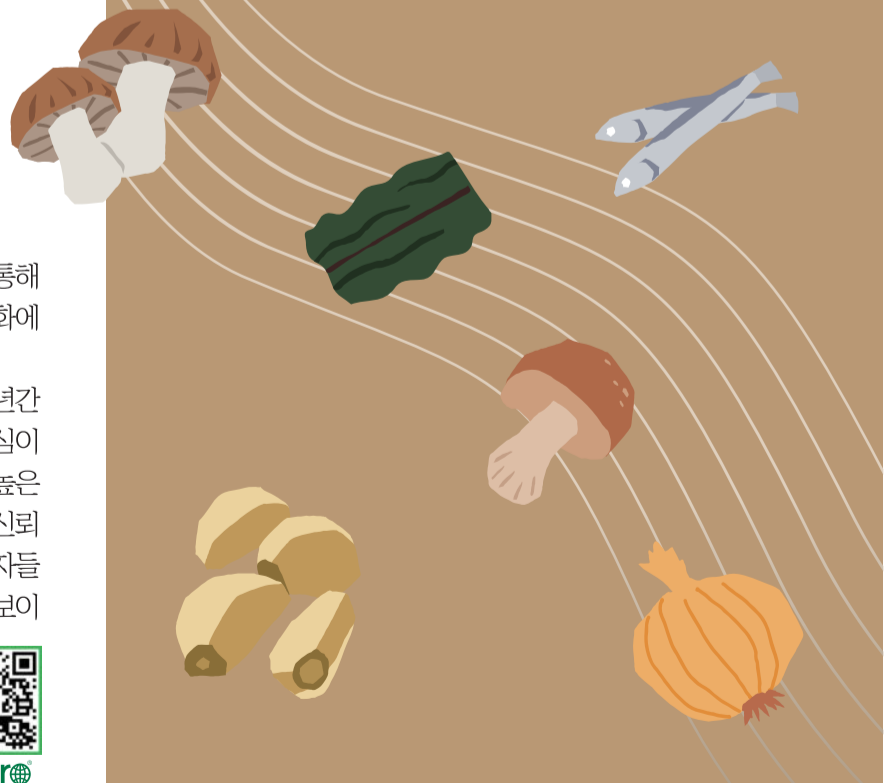


40년 참치명가 자부심·기술력 집대성  
독보적 제조 노하우로 액상조미료 선배

신선한 참치 원료로 진한 감칠맛 구현  
훈연참치추출물 80%... 풍미 '차별화'  
국물요리부터 조림·찜까지 활용도 높아

가쓰오 풍미 '진', 황다랑어 '프리미엄' 등  
소비자 취향·요리목적에 맞춰 3종 구성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  
지속적 연구개발로 참치액 표준 제시할 것



▲이정후, 어린이날 맞아 장애아동 위해 1000만 원 기부...8년째 선행  
▲송성문, MLB 데뷔 첫 안타 장타로 장식...2타점 2루타 폭발  
/사진 뉴시스

▲손흥민, 멕시코 고지대에서 시즌 3호골 노린다...해발 2670m 톨루카 원정 준비  
▲유럽 챔스 '결승 티켓' 누가 쥐나...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vs 파리생제르맹 이강인 격돌

▲2028 LA 올림픽 남자축구대표팀, 사령탑에 김은중 전(前) 수원FC 감독  
▲대한펜싱협회, 우즈베키스탄 사브르 선수단 초청 합동훈련

# SAMSUNG

## Galaxy S26 Ultra Galaxy AI ✨



[samsung.com](https://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S펜은 갤럭시 S26 울트라에만 내장되어 있습니다. AI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고하세요.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의  
최대 혜택을 만나보세요